



통권 121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1. 11. 17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석방을 위한 민가협 400회 목요집회



2001년 11월 1일 민가협 400회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 가족들이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 석방”의 절규로 1993년 9월 23일 목요집회를 시작한 지 어언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 양심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어머님들의 애티는 노력을 이어받아 반드시 뜻을 이루어야겠습니다.

• 목 차 •

- 우리의 주장 권오현 회장 • 2 /출소장기수 유기진 선생님을 찾아서 괴인석 편집위원 • 4 /양심수 서민노회 대표 최석희님 부인 이옥란님을 찾아서 김호 편집위원 • 8 /김혜순 회원을 찾아서 이창희 간사 • 10 /가을 도봉산 산행기 정덕선 신입회원 • 12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01 회원역사기행기 김혜순 편집위원 • 13 /감옥에서 온 편지 한총련간부로 구속된 송태윤님 • 16 /양심수 진재영님께 보내는 편지 김도균 신입회원 • 17 /감옥에서 보내는 시 유병문 편집위원 • 18 /특집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기행기 2 권오현 회장 • 19 /나의 삶 나의 일터 정은주 편집위원 • 25 /민가협 가을장터소식 송장학 회원 • 27 /광고 • 28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9 /결산 및 보고 • 35 / 회비납부 • 36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Tel. 765-5282 Fax. 745-5604 회원모임방 Tel. 02-888-4470 Fax. 02-888-4470

400번째 맞은 민가협 목요집회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가 400번을 넘겼다.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을 약속했었고, 인권메달과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권대통령 아래에서도 목요집회는 멈출 수가 없었다. 군사독재정권이 아니고 이른바 거짓 문민정권도 아닌, 50년만의 정권교체로 그렇게도 기대했던 국민의 정부 4년이다 되어가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많은 양심수가 갇혀 있으며 애국청년학생들과, 노동쟁의를 벌인 노동자들이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다. 밀레니엄 사면을 요란스럽게 말만 해놓고도 2000년, 2001년을 그대로 넘기고 있을 뿐 아니라 중증간경화환자와 고혈압등 질환을 앓고 있는 70이 넘은 노약자, 교도소장도 인정하고 있는 재소생활이 어렵다는 정신불안증 환자조차도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전근대적 응보형 행패와 반인도적 인권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임종을 앞둔 아들을 잡아 가두고, 동생의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려 병원을 찾은 누나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 연행하는가 하면 결혼 한 주일을 앞둔 신랑이 구속되고 있다.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해오며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온 통일운동단체가 이적으로 불려 탄압받고 끊임없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으며 구조조정·정리해고로 일터를 잃은 노동자의 항의는 곧바로 공안대상이 되어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민가협 목요집회가 그 깃발을 내릴 수 없는 이유들이다.

400번째를 맞은 민가협 목요집회에는 색다른 모습이 보였다. 양심수를 대신하여 그 가족들이 푸른 수의를 입고 양심수 사진들을 들고 있었고, 주인잃은 텅 빈 방에 걸려있던 구속당할 때 입고 있었던 양심수들의 옷이 대열을 이루고 있었다. 갇혀 있는 아들과 딸과 남편을 석방시키

기 위해서라면 대신 감옥에라도 가고자 하는 절실함이 표현된 퍼포먼스였다. 이 양심수들의 옷에 민가협 자료의 사연을 옮겨보자. “항해로가 재판받을 때, 어머니는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옷 한 벌을 새로 넣어주셨다. 하지만 딸은 그대로 감옥에 있고 수번이 달려있는 옷만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생신을 맞아 사골집에 내려가기 위해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던 황 선씨, 그러나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그 옷을 입은 채 체포되었다. “하루종일 전신주에 매달리던 고된 일터에서 20년동안 입었던 홍준표씨의 작업복” “오랜 수배로 떠도는 아들 손준혁을 걱정하던 아버지는 털스웨터를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체포되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혀 보지도 못한 채 암으로 눈을 감았다.” “하영옥씨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달리기를 했다. 아내는 다시 그 옷을 입고 달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옷을 뺀고 또 뺀았다” “결혼식때 입으려고 준비했던 예복, 그러나 결혼식을 불과 9일 앞두고 체포된 김건수씨의 예복은 허망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400회 목요집회에서도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그 가족들의 절절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갇혀있는 하영옥씨의 어머니 권성희님의 ‘인권대통령에 보내는 편지’, 월간 자주민보 발행인 이창기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공안당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그 부인 김일심씨의 규탄발언, 방북대표로 평양을 다녀와 구속된 김대원씨의 누이동생 김미영씨의 사례발표 그리고 이 날 퍼포먼스의 주제인 옷과 관련된 사연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년 6월형을 살고 있는 심재춘(성우 원창현씨 대신 읽음)씨와 그 부인 이문희씨의 편지 낭송이 있었다. “당신을 위해 밟고 화사한 색상의 옷을 고르다 이내 놓아버리고 짙은 회색옷을 고르고 말았습니다. (중략) 밝은 색깔의 옷을 빨기에는 감옥의 물이

너무 차가워 손이 시릴까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동안 몇 번이고 목이 메이었고, 지켜보는 집회참가자들도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당신이 눈물로 보낸 스웨터는 내게 와 사랑이 되었답니다.’라고 남편의 아내를 위로하는 편지사연도 있었다.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은 여는 말에서 ‘국가보안법과 양심수가 갇혀 있는 한 목요집회는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목요집회 400회를 맞아 인권개혁 촉구문을 서경순 전 상임의장이 읽었다. 양심수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 폐지를 주장했다. 과거정권의 인권침해 전면적조사와 진상규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실효성 보장을 촉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입,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중단과 형사피의자의 권리보장도 요구했다. 그리고 재소자인권보장과 함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촉구했다. 400회 목요집회에는 장기구금 양심수들이 함께 하 고 민가협 어머님들께 꽃송이를 안겨드렸고 유가협 박정기 회장님과 여러분,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의장,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스님, 오창의 인권실천 시민연대 대표 등 사회단체 대표와 그 성원들이 함께 하며 격려하고 있었다.

1993년 9월 23일 첫 목요집회가 열리고 있을 때만 해도 해를 넘겨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다. 그만큼 이른 바 문민정권에 거는 기대가 커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집권하기전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없는 세상 빌언은 1년도 못돼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3당야합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집권 5년간 6269명의 양심수를 구속하면서도 취임때 사면조치말고는 양심수로 인정도, 사면도 끝내하지 않았다. 민가협 목요집회는 한시성을 벗어나 거짓 문민의 반인권정책과 억압구조에 맞서야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출범을 맞게 되었다. 50년만의 정권교체에 거는 양심수 가족들의 기대는 문민정권에 비할 바 아니었다. 분단구조와 억압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데 의심하지 않았었다. 늘 함께했던 탑골공원 노인들도 이젠 목요집회가 끝날 수 있다며 격려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기대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문민정권에 뭇지 않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도 10. 31일 현재 1831명의 양심수가 구속

되었으며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만도 911명에 이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고사하고 스스로 밀해 왔던 개정의 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전후해서 밀해 왔던 안기부 개혁문제도, 수사권 삭제조차 못한 채 이름만 바꾸어 공안탄압의 주범 역을 하고 있다. 민가협 목요집회는 이미 피해자로서의 양심수 가족만의 주장을 뛰어넘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어떠한 침해 행위와 법과 제도, 관행을 고발하고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인권을 지키는 파수대로서 인권탄압을 지켜보는 가늠자로서 양심수의 의로움을 지지·연대하고 그 실천에 함께 하고 있다. 특정정파를 규탄하지 않고 반인권 반민주 반민족적 행위를 규탄한다.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고 정의·평화를 옹호한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이행에 민족민주세력과 연대한다.

아직도 감옥에 123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다. (10월 31일 현재) 그리고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수백명의 애국적 청년학생들이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다. 그리고 400회 목요집회가 열리고 있던 바로 그날에도 8년동안이나 정치수배를 받아오던 94년 전남대학교 진재영 총학생회장이 보안수사대에 강제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구속된 양심수로 학원자주화와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해온 청년학생들(441명)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벌여온 노동자들(54명), 그리고 수없이 탄압을 받아오면서도 자주통일운동을 헌신적으로 해오던 재야 민간통일운동을 해오던 인사들(25명)이다. 오늘의 공안탄압 양상을 보여주는 표본이기도 하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양심수가 갇혀 있는 한 그리고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이 살아 있는 한 민가협 목요집회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양심수들이 주장하고 있는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철회, 구조조정·정리해고반대,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지지와 연대, 실천에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정치수배해제하라!

노동3권 보장하고 구속노동자 석방하라!

‘통일을 실어 나르는 택시운전사’

곽인석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가을이 머무른다는 11월 들어
들녘도 사람도 출렁거린다. 풍년들이
걱정이라는 우리네 어리석음인들 수
없이 거꾸로 흘려보낸 시간들에 비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서울 하늘 아래 사팔뜨기
가 된 눈들, 듣지 못하는 귀들을 실어
나르며 뜨거운 심장으로 그들을 치료
하기까지 30년을 택시운전사로 통일
을 노래부르는 77세의 할아버지가 계
신다.

수유리 4·19묘지 정문에서 왼쪽
으로 좀 더 오르면 작은 연립주택들
이 서울을 상징하듯 촘촘히 줄지어
서 있다. 11월 6일 쉬시는 날에 맞추
어 권오현 회장님과 함께 유기진 선
생님을 찾았습니다.

10여평의 작은 주택이었지만 사모님과 동고동락해오
시며 사랑과 눈물로 일구신 보금자리였다. 그 작은 집에
서 오늘은 부산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골다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사모님과 두 며느리가 음식 장만하느라
바쁘셨고 어린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응원
을 받아가며 대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오늘이 북
녘 고향에서 56년 전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친 제삿날이
었다.

유기진 선생님은 1925년 1월 16일 함경남도 신홍
군 하원천면 축상리 90번지에서 태어나셨다. 하원천면은
장진수력발전소 인근으로 함흥 북쪽 100리 길에 있다.
아버지 유치보 님과 지금도 이름을 불러주실 것만 같은
어머니 김어인순 님은 1남 3녀를 두신 질박한 농사꾼이
셨다. 장남으로 태어나신 선생님은 복순, 진순, 태진 세
여동생과 함께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농삿일을 배우



는 것이 자연스런 성장이었다.

일제가 1920년대부터 시
작한 산미증식계획은 우리 민족, 민초
들의 삶을 그야말로 풀뿌리로 연명케
하였던 바 선생님 가정에도 이주민의
삶을 강요하였다. 홍수까지 겹쳐 3세
때 삼수갑산의 화전민으로 이주하셨
다 하니 부모님께서 겪으신 고통이야
어찌 어림할 수 있으랴. 그러나 그곳의
삶 또한 한 많은 타향살이밖에 남을
게 없어 2년여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
시게 되는데,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었
던 소를 타고 돌아오시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시단다.

이즈음 선생님은 처음으로 서당에
다니게 되셨는데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셨다. 13세 되던 1937년에 하원천 보통학교
에 3학년으로 편입되어 17세로 졸업할 때까지 집안 일을
도우며 농삿일을 함께 배워나가셨다. 이듬해에는 청운의
꿈을 품고 함흥농업학교에 입학하게 되신다. 조선 태조
이 성계가 왕위를 버리고 ‘함흥차사’를 만들어냈던 함흥
본궁에서 기까웠다고 하신다.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함
흥의 정경들이 손에 잡힐 듯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슴시리
게 하는 것은 100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 교육시키
려고 당나귀에 곡식 싣고 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다. 장
남인 학생은 하숙비 부담까지 아버지에게 얹혀드릴 수
없어 결심 끝에 2학년에 중퇴를 하고 만다.

고향으로 돌아온 19세 청년에게 새로운 현실인
식과 더불어 이후 삶의 노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은 유종진 6촌 형님이다. 20년 연장인 종진 형님은 보
통학교를 졸업하고 야학을 통해 농촌계몽운동에 힘을 쏟
으며 ‘아리랑’ 등의 연극을 통해 민족혼을 불어넣고 있

던 애국투사였다. 감옥살이 끝에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는 즉시 조직을 결성하는 등 남다른 활약상을 보였던 분이셨다고 회고하신다. “레닌이 ‘나는 노동자와 똑같은 밥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주기도 한 형님이셨다 한다.

20세가 된 1944년 겨울, 선생님은 징병예비병력으로 차출되어 노역징발에 동원되신다.

홍남비료공장 노역 중 어느날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일본인 십장과 다툼 것이 화근이 되어 헌병대까지 끌려가셨다. 그후 헌병대 유치장을 도주하여 숨어 다니시던 중 1945년 8·15해방을 고향집에서 맞으신다.

그런데 해방 직전 보국대로 끌려갔던 사촌동생 춘진이 돌아오면서 그만 열병을 얻어 왔다. 그 병이 집안 식구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하여 숙부, 숙모님과 사촌형, 동생, 조카 등이 차례로 병시했다고 하신다. 급기야 선생님의 부친도 앓아눕게 되자 선생님이 고향에 올라가 병수발을 들면서 집안 일을 돌보게 된 것이다. 결국 아버지는 해방 후 몇달을 못 넘기시고 돌아가셨는데, 바로 오늘이 제삿날인 것이다.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으셨지만 선생님은 이때부터 맹렬히 민청활동을 시작하신다.

이복형인 이명훈님이 함주군 주지면 당 일꾼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도 주지면 민청 일꾼으로 2년 정도 활동하셨다고 한다. 당시 해방 이전에 이미 해방의 날이 임박했음을 전했던 최종문 면당위원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억하고 계신다.

홍남 당위원회로 한설야 동지가 책임을 맡고 있었던 무렵이었다.

1947년 8월 10일 추석 전에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를 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상봉이 될 줄이야… 8월 13일 면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입대를 하시게 된 것이다. 만포에 가서 훈련을 받으시던 어느 날 인절미떡 한 말이 실려왔다. 6촌형인 충진형이 군관학교 졸업 후 휴가차 고향에 갔다가 어머니께서 내놓으신 편지를 보고는 같은 부대인 것에 놀라 찾아온 것이다. 이 편에 어머니가 보내주신 떡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마지막 음식 맛을 보게 된 것으로 지금도 오매불망 잊지 못한다고 하신다.

만포에서 45mm 포부대 훈련병으로 6개월간 복무하셨다. 당시 만포 4연대장으로 오진우 동지, 문화부

연대장으로는 박금철 동지가 복무하고 있었다. 만포부대에서는 모든 것이 자립으로 이루어졌다. 만포 유리공장의 가구를 떼어다가 침대를 만들던 기억을 더듬으신다. 또한 박금철 문화부연대장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을 받으신 일도 있었다. 결혼한 지 3일만에 입대한 훈련병이 있었는데 ‘조국의 부강 건설에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며 그 훈련병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신다.

훈련을 마친 후 선생님은 하사로 부분대장에 임명되었다.

48년 사리원 도착 후에는 해주 포병직속중대로 45mm 포병 1개 중대가 창설되었는데, 그곳의 1분대장으로 복무하게 되셨다. 이후 까치산 전투와 치열했던 음파산 전투를 치르면서 전사의 의지를 다져나가셨다. 이것은 또한 해방 이전부터의 전투가 6·25전쟁 직전까지 계속되어오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까지도 선생님께서 되뇌이시는 전투지침이 있다. 문화부연대장이 전해준 한 병사의 마지막 외침으로, ‘나의 고지 조국의 고지, 조국의 고지 나의 고지’라고 하신다. 38선 부근의 전투에서 총탄을 맞고 죽어가는 순간에 자신의 피를 묻혀 헐로서 남긴 것이었다.

1949년 선생님은 보위성 산하 38경비대로 배치를 받으셨다. 얼마 후 각 분대장들을 소환하여 금천에서 특수훈련을 3개월 받았는데, 군관으로 임명받아 다시 38경비대 직속 포병중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부여받으셨다.

1950년 6·25전쟁이 터지자 선생님은 조선인민군 9사단에 편입되어 파주를 거쳐 서울에 입성하셨다. 지금의 미(美) 용산기지에 주둔하던 중 미군의 첫 폭격을 받았다고 하신다. 이후 정릉 부근으로 이주하면서 1중대장으로 승급하셨다.

그 후 남쪽으로 내려가 낙동강 2차 도하작전에 참가하시게 된다. 미군의 폭격으로 밤에만 이동하였는데 포차량의 라이트를 절 수 없어 병사들이 흰옷을 입고 앞으로 행진하는 것을 기준 삼아 차량 이송을 했다고 하신다. 지금도 포성이 진동하는 듯한 낙동강을 도하하여 일주일 후 ‘푸른 고지’로 진격하던 중, 갑작스런 미군 비행기의 맹폭을 맞아 산비탈에 몸을 숨기셨다. 하루종일 32대의 비행기가 교대로 한 순간의 쉴 틈도 없이 퍼부어 이때 부대의 포가 거의 궤멸되었다고 하신다.

당시 연대장의 마지막 비장한 명령이 내려진다. “남은 포탄을 무조건 푸른 고지를 향해 작렬시켜라” 비행기의 계속된 폭격 속에 부서진 포를 세워 포탄을

발사하던 그 순간은 어떤 영화 속의 장면보다 치열했다고 증언하신다.

이후 작전참모와 함께 인근의 야산고지로 진격하던 중 맹렬한 중도사격을 받게되어 포수와 분대장이 쓰러졌다. 그리하여 포수 대신 중대장이 직접 포를 쏘던 도중 윈쪽 발목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진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훈장처럼 남아있는 자국은 77세의 할아버지가 당시 중대장이었음을 유일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출혈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셨다. 다시 낙동강을 건너 남원 야전병원에 계시다가 9·28 후퇴로 마차를 빌려 타고 전북 임실까지 이동하신다. 남원역으로 갔었지만 폭격으로 철로가 끊겨 있었고, 기총사격으로 뒤집혀진 마차가 밭고랑에 쳐박혀 간신히 한쪽 발로 빠져 나오셨다.

하늘의 도움으로 이동 중이던 전북도당 소속의 트럭을 만나 회문산 500고지 앞까지 당도하셨다. 그러나 발목 부상으로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혼자 버텨내셔야 했다. 상처부위가 썩어가면서 냄새를 피우자 까치, 까마귀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니… 물을 구할 수 없어 진흙을 짜서 드시고 아침이슬을 훑어 드시며 목숨을 연명하셨다. 급기야는 더 이상 지탱하실 수 없게 되어 앓은 상태에서 손으로 밀며 필사적으로 산을 내려오셨다 한다.

금산골의 한 부락에 도착하여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으로 기어 들어가셨다. 그 할머니는 자식을 인민군에 보냈는데 소식이 없다고 하시며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셨다. 얼마만에 먹어보는 밥인지 밥을 드시다 밥에 취해 잠이 드셨다고 한다.

이후 전북도당의 도움을 받아 쟁치전투로 유명한 가막골의 의무대로 보내지셨다. 그곳엔 당시 38부대 대대장으로 지금의 통일광장 대표이신 임방규 선생님이 활약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성냥, 납 등으로 탄약을 제조하기도 했었다고 하신다.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신 후 다시 회문산으로 돌아오셨다. 당시 선생님은 자유로운 활동은 못하셨지만 문화부 연대장의 직책을 맡고 계셨다.

1953년 7월 휴전 후 일부는 지리산으로 입산하였고 일부는 지구대별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선생님은 덕유산 기슭의 숯막으로 이동하여 활동하고 계셨다. 그러던 중 1954년 1월 인민군 출신으로 지구대장을 맡고 있던 이인걸의 전혀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여성동지 3명과 함께 체포되신다. 이인걸이 지서에 투항하여 토벌대와 같이 산에 올라온 것을 누군들 알 수 있었겠는가? 훗날 수용소에서 그는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남원 임시수용소를 거쳐 광주 포로수용소에 보내지셨다. 이곳에서 인민군 부연대장이었던 이육(본명 이성우) 동지의 도움으로 살아나셨단다. 이육 동지는 보위성 직속 포병부대 대대장으로 활동하였고 동향이었던 지라 선생님을 배려해 주었다고 하신다. 당시 수용소는 맞거나 굶어서, 또는 질병으로 수많은 죽음을 쏟아내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이육 동지는 포로수용소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유정책을 거부하고 사형을 당하였음을 훗날 임방규 동지에게 들으셨다고 하신다.

여기서 선생님은 명백한 전쟁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보내지지 않고 1954년 12월 청주형무소로 옮겨지셨다. 형무소 감방에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10년 선고를 받았는데, 재판정에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감방에서 선고를 받은 무법천지의 세상에 내몰리셨던 것이다. 병사생활 또한 밥알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열악했는데 환자가 죽어도 알리지 않고 죽은자의 양식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고 하신다.

1955년 3월 마산형무소로 다시 이감되셨다. 56년경엔 처우개선 문제로 단식투쟁을 전개했는데, 주모자로 몰려 독방생활을 하게 되신다.

1957년에는 전주형무소로 오셨는데 이곳에서 지금까지 두터운 동지애를 품고 있는 김교영 선생님과 순창 출신의 조기창 동지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신다. 조기창 동지의 부인이 면회를 다녀갈 때 맛보았던 미숫가루를 평생 고마움으로 간직하고 계신단다.

잊을 수 없는 1958년 전향공작사건은 지금도 그 부당성을 격정으로 토로하신다.

한곳에 집결시켜놓고 심문을 하다가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고문이 가해졌는데, 그 악랄함이야 일제 때부터 이어져온 것이 아닌가.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나는 인민군이다. 전쟁포로가 무슨 전향이냐’고 외쳐대셨지만 고문기술자들은 백지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저들은 전주교도소 100% 전향을 떠들어 댔던 것이다.

1959년에는 목포형무소로 전전하게 되셨다. 그리고 1960년 10월 1일, 선생님은 7년 징역 끝에 36세로 출소하셨다. 훗날 테러를 대비하여 소지하게 된 특별사면장을 지금도 보관하고 계신다.

출소 후 목포 간생보호소를 거쳐 서울 간생보호소로 보내지셨다. 당시 동두천의 한 두부공장으로 일을 나가게 되셨는데 그곳에서 공장 전무의 소개로 그 집 가정부로 일하던 박초순 님과 1962년 결혼하여 3남 1녀의 자녀를 두셨다.

이후 염천교 시장, 청량리 일대에서 갖은 일을 겪어내며 자립의 의지를 불태운 끝에 1965년 미아리에 작은 구멍가게를 내실 수 있었다. 사모님은 밤늦도록 가게 일을 보셨고 선생님은 동네 구석구석 연탄을 배달해가면서 생활을 개척해 나가셨다. 연탄 1장을 배달하면 1원이 남았지만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하셨단다.

어느정도 주위에서 인심을 얻게되고 성실성에 감탄을 받아가며 지내시던 어느날 성북경찰서 형사가 찾아왔다 고 하신다. 이때 선생님은 생의 한 고비가 다시 찾아온 것을 직감하고 사생결단을 하며 덤벼들었다고 하신다.

‘나를 계속 못 살게 할 작정이면 오늘부터 당신 집에 가서 살겠으니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내라’

이후 사모님은 과로가 겹쳐 병까지 얻게 되신다. 1970년 사모님의 치료를 위해 선생님은 구멍가게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에 나서셨는데,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지속해오고 계신다. 한 달에 3일만을 쉬고 꼬박 그렇게 일해오셨다 한다.

1971년 사모님은 결국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 약사의 권유로 얻게 된 막내딸이 돌을 갓 넘기고 있었고 그 위로 조망 조망한 사내아이들이 셋이나 있었다. 이듬해 재혼을 하셨는데 선생님을 알뜰히 내조하시며 어린아이들을 훌륭히 키우신 반금숙 사모님은 올해 70세로 선생님의 든든한 베품목이셨다. 자녀들은 이제 모두 30대의 나이로 어엿한 가정을 꾸려 손자, 손녀들의 재롱까지 안겨주며 효도를 다하고 있다. 오늘도 온 식구들이 모여 한번도 뵈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의 제삿날을 정성스럽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1999년 2월에 선생님은 50년만에 금강산을 다녀 오셨다. 구경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도 그립고 평생의 한을 토해내고 싶으셨던 것이다.

세관 통관시 인민군 장교의 손목을 잡고 눈물을 쏟으셨단다. 50년만의 “반갑습니다!”였다. 고향을 향해 사모님께서 챙겨주신 술, 대추 등을 차려놓고 목놓아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셨단다. 이튿날 아침 벳전에서 장전항을

바라다보니 인민군들의 행진하는 모습이 보이더란다. 선생님은 무엇을 떠올리셨을까!

문익환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박용길 장로님과 우연히 동행하게 되셨는데, 금강산 교예단과 함께 기념 촬영한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다.

문득 며칠 전 양심수후원회 경기남부지역 역사기행 때의 비장 어린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인민군이다. 죽어서도 영원한 인민군이다.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분명히 인민군 장교 교육을 받았으며 빨치산 생활을 통해서도 인민군으로서의 궁지와 책임을 다했다. 그러나, 나는 전쟁포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감옥으로 끌려 갔었다. 포로에 대한 제네바협정과 정전협정대로였다면 나는 고향과 가족을 북에 두고 살지 않았을 것이다.

1세기 동안 우리는 단 한번도 자주주권국가로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후손들을 위해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통일을 이루어 물려주어야겠다. 주권국가를 이루어야겠다.

우리나라 강산은 너무나 아름다워 놀랍기만 하다. 내 눈, 내 손으로 보고 만지고 싶다. 이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

절절이 맷혀있던 묶음들을 50년만에 풀어내신다는 선생님의 상기되신 모습을 뵈오는 것조차 역사의 한 장면이리라. 새벽마다 뒷산자락을 오르신다는 선생님께 부디 건강을 지키시어 이북의 가족들을 상봉하시리는 말씀을 드리니 금강산 귀면암에서 찍으신 사진 한 장을 건네주신다.

문 밖의 사모님과 가족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니 북한산 끝자락에 하얀 달이 걸려 있다. 끝까지 어두운 길을 안내해주시겠다며 당신의 ‘통일택시’를 몰고 나오시는 선생님께 가슴속으로 여쭈었다.

“에서 평양까지는 어떻게 가는지요?”

공권력의 비열함과 아이들의 눈물

김 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안의 사람이 이옥란 님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원고 마감 바로 전날 조직사건으로 구속이 된 최석희 씨의 부인 이옥란 씨와 가족 대책위의 강미 씨를 만났습니다. 소위 서울민주노동자회 조직사건입니다. 사실 필자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그 사건의 전모를 들어보니 역시나 별일이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사회에서는 상식이 된 자주 민주통일을 강령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그리고 이전에 있던 문건을 정리한 것이 아직 표현물 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민주노동자회는 구로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노동자 단체로서 노조를 지원하거나 상담을 하는 무료법률 노동교실을 운영하면서 구로지역 단체나 노조와 연대하여 8.15 통일운동에 참여하거나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총선 때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또한 그 운영비는 전적으로 회원들의 회비에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국적

인 민중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 냉엄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임입니다. 상식이 비상식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인지 사건의 내용 자체에 분노가 일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저 쓴 웃음이 난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화가 났던 것은 공권력의 비열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재탕사건입니다. 정확하게

4년전 참여노련(참여노련)이라는 조직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항목도 똑같고 잡아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이 4년 뒤 똑같은 사건을 또다시 적용을 해서 다시 잡아간 것입니다. 구속된 전체 인원 9명중에서 5명이 이전 사건과 관련 구속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공권력으로 하여금 이토록 비열한 행위를 하도록 했을까요? 그것도 노벨 평화상이나 받았다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사실 노벨평화상도 분단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머리에 박힌 반북사상 앞에서는 그 어떤 상식도 굴복하고 맙니다.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 그리고 그 어떤 상식적인 행위도 무릎을 끊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식으로 굳어져 그 아픔을 외면하는 동시에 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냉소와 사회적인 관념의 벽이 더 냉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매묻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보는 눈으로는 그 아픔과 모순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최석희 씨가 연행되는 6월 26일 아침 출근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날 경찰들은 사복을 입은 상태로 부인 그리고, 5살 먹은 아들과 함께 있었던 아버지를 잠시 나가자는 형식으로 연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를 지켜보던 아들이 “엄마! 왜 경찰들이 우리 아빠를 잡아가?”라고 했답니다. 사복경찰이 뭔지도 모를 정복 입은 경찰만 봐왔을 아들의 눈에 공권력의 진상과 폭력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엄마와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엄마! 아빠 왔나봐”라며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나쁜 경찰’을 되뇌인다고 합니다. ‘호환’ ‘마마’ 보다도 무서웠던 ‘나쁜 순사’를 되뇌여야만 했던 일제시대의 상처 받은 동심이 2001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원인도 모른 상황에서 정서적인 불안과 경찰에 대한 심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은 나름대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노동자 안 했으면 안 잡혀 갔잖아.”

구속된 9명 중에서 2명의 아이 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최미선 씨는 집에서 딸들이 보는 와중에 연행이 됐는데 이후 딸들은 낯선 남자가 오면 자자리지게 놀라거나 울음을 터트린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무서워서 공권력으로 하여금 연약한 아이들의 엄마를 연행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토록 아픈 상처를 남겨주어야만 했던 걸까요?

아이들의 눈물은 정의를 대변합니다. 그 어떤 부당한 힘이 정의를 우롱하고 참혹하게 짓밟을 때 아이들은 의분을 참지 못 하고 목놓아 울습니다. 아이들은 눈물로써 자기 앞에 닥쳐올 재난을 경고하며 그 재난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의 울음은 자기를 사랑하거나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이 보내는 최대의 하소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울음 앞에서 가슴을 조이며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후대들을 아끼고 돌보아 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 중 가장 기초적 본성으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의 울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절박한 하소연을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생명의 외침을 외면하는 사회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조직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내내 아이들의 울음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하소연을 받아 안기는 커녕 눈물을 강요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절박한 하소연을 어떻게 받아 안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감상을 꾸짖기라도 하듯이 아이들의 엄마인 그리고 최석희 씨의 반려자인 이옥란 씨는 학습지 교사를 하러가야 한다면서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도 밥을 한 그릇 맛있게 먹고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싸늘하게 맑았습니다.

주말 문화생활로 충전해서 일주일을 산다

이창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

푸른 가을하늘 아래 어느 일요일, 인사동에서 아주 편한 아줌마를 만났다. 이 아줌마는 만나는 사람마다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묘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91년에 결혼하여 지금 65년생 37살로 1남(이성재: 5살) 1녀(이상화: 7살-초등학교 1학년)의 어머니이지만, 편한 인상에는 정다운 아가씨같은 모습이 숨어 있다.

다름 아닌 이 아주머니는 많은 회원들이 알고 있는 ‘0.75평 지상에서 가장 작은 내방 하나’라는 장기수선생님 관련 책자의 김선명, 홍경선 선생님 편을 쓰고, 전체 책을 이득행 회원과 함께 윤감한 김혜순 회원이다.

이 회원이 양심수후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90년 5월 5일 한길사 주최 ‘태백산맥’ 완간기념 기행 때였다. 기행 단의 6조에 속했는데, 그 조에는 권오현, 이정규, 김호현 님 등이 함께 했다고 한다. 이들은 기행에서 맺은 정으로 역사기행소모임인 ‘옴시통감시룡’을 만들어 꾸준히 멋진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갔고, 그 모임은 권오현 선생님이 속한 양심수후원회에 든든한 지원단체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 후 모임에는 적지않은 장기수선생님들께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여러 지방을 함께 역사기행을 하였다. 기네 스북에 올리있는 세계 최장기수인 김선명선생님도 회원 이시고, 현재 남녘에 남아계신 그 다음 최장기수인 안학섭선생님도 회원이시다.

이러한 관계로 장기수선생님들과 친해진 김혜순 회원은 그의 표현대로 선생님들의 인생에 그려진 한국현대사의 소중한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정리한 “0.75평 지상에서 가장 작은 내 방 하나”라는 책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큰 힘을 받은 것은 본인이었다. 많은 선생님들과 친했지만, 홍경선 선생님과는 그리 많은 이야기

를 나눈 사이가 아니었는데, 책작업을 통해 자주 만나면서 ‘선생님의 사람들에 대한 헌신성, 정성 등에 놀라 연모(?)의 정까지 품을 뻔했다고 한다. 이 아주머니는 자신의 인생에서 선생님들을 만난 것은 “겨울에 내리는 흰 눈처럼 축복” 이었다고 한다. 또한 옴시통감시룡이 역사기행소모임을 넘어, 서로의 공동체로 잘 성장한 것도 훌륭한 장기수 선생님들이 정신적 지주로 계셨던 덕분이라고 한다.



이정규 회원, 아들 성재와 함께한 김혜순 회원.

또한, 김혜순 회원이 이렇게 좋은 책과 인연을 맺은 것은 나름대로 글에 대한 재주와 올바른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1985년 성균관대 국문학과

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겨우 졸업할 만큼, 서울시내 지리를 궤뚫을 만큼 학생운동을 하였다. 86년 5·3 인천사건 때 선배들의 말에 몇모르고 갔다가 경찰들의 엄청난 진압으로 동인천역에서 사람들과 담까지 허물고 정신없이 도망쳐 겨우 열차타고 영등포역까지 왔는데 다음 날, 엄청난 뉴스로 부각되어 상당히 놀랐던 적도 있다고 한다.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은 대개 개인적으로 지내다가 대학생시절 정겨운 소모임활동과 진지한 현실인식을 통해 세계를 향한 자신의 올바른 눈을 뜬다. 하지만, 김혜순 회원은 어릴 적부터 공동체 생활문화를 통해 ‘사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2남 4녀의 다섯째로 태어나 그 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다. 부모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 문화를 몸소 보여주었다고 한다. 음력 백중이 되면 일꾼들이 튼튼하고 보리빵도 하고 술도 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직접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싸서 동네아이들 모두를 테리고 산으로 놀러갔다고 한다. 또, 대보름이 되면 부모님은 집집마다 돌이다니며 귀신을

쫓고, 큰 그릇에 나물밥을 비벼, 모인 사람들 모두와 나누어 먹고, 쥐불놀이를 하며 사람들의 홍을 돋구곤 했단다. 추석때 강강술래는 기본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음시롱감시롱 등 기행을 가면즉석에서 제기를 만들어 모두와 함께 제기차기를 하곤 한다.

물론, 모든 시골마을이 그러했을 텐데, 필자의 느낌으로는 그 마을이 더욱 그러한 공동체문화가 짙었다고 본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봄 김혜순 회원의 어머님은 공연차 서울에 올라오셨다. “진도에 또 하나의 고려가 있었네”라는 제목의 진도북춤, 진도아리당, 남도민요 등이 담긴 창극이 국립국악원 예약단에서 올려졌다. 김씨 씨족촌인 고향 전라남도 진도군 임채면 십일시에는 북춤전수소가 있는데 어머님은 그곳의 단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끼리 모여 창도 배우고, 춤도 배운다고 한다. 바로 그러한 동네사람들이 올라와서 공연을 한 것이다. 어머님은 공연단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어머님께 용돈을 보내면 어머님은 전수소에 회비를 내고 이른바 ‘문화생활’을 즐기신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이 김혜순 회원에게 남다른 민족문화관과 글에 대한 재주를 주었으며, 결국 그것이 장기수선생님이라는 민족의 살아있는 역사와 만나게 한 배경이 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배경은 김혜순 회원으로 하여금 온 가족과 함께 주말마다 기행 등에 나서게 한다.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화랑에도, 고궁에도 가면서 힘을 충전하여 일주일을 보낸다는 것이다.

“여행을 다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행을 함께 하는 음시롱감시롱이 공동체를 대신해준다.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관계가 좋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 모여서 실천할 수 있어서 좋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느낌이 든다.”

그는 단순히 좋은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자라면서 익숙해진 공동체성을 여행을 함께 다니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남편의 봇도 톡톡히 있다. 대학교 동아리 후배의 소개로 만난, 당시 고등학교 선생님이자 33살의 노총각이었던 이현근님을 사당동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난 날, 책 한 권을 보통 우리가 그러했듯이 달력그림으로 포장했는데, 지금 남편이 된 그 분이 그 달력그림의 화가를 맞추더라는 것이다. 그런 남편이 웬지 끌렸고, 음시롱감시롱 첫 기행인 91년 2월 갑사에서 동학사로 가는 편에 함

께 하여 정이 깊어지고, 결국 결혼까지 골인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남편이 ‘김혜순 아줌마’의 동반자로서 그녀의 여행편력에 조력자(?)가 된 것이다.

그녀의 여행관이 진하게 묻어나는 대목이 있다. 사람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가장 인상깊었던 기행장소가 어디었나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섬진강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해 전 우리가 갔을 때 너무 좋았다. 시집 ‘섬진강’의 저자 김용택선생님의 고향 진메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의 분교에도 가고 섬진강 주변의 갈대숲과 시냇물을 따라 강을 건너서 구담마을·천담마을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보았다. 봄의 살구꽃과 그 향기, 용기종기 모인 옛 집, 굽이굽이 흐르는 강은 마치 우리 마음의 고향이었다. 그 마을이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는데...”

그렇다. 그가 가장 인상깊었던 곳은 마을이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우리의 마을인 것이다. 에버랜드 같은 곳은 싫다고 한다. 그는 지금 자신이 사는 용인에서 ‘용인 청년일꾼’이라는 지역단체가 하는 민족학교에도 나가면서 지역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그녀의 끼는 살아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아직 누님을 잘 몰라서인지, 이 독특한 아줌마의 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문득 인사동의 경인화랑에서 가을 낙엽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들었나는 질문에 “진도의 상여소리가 생각난다. 장례절차가 복잡한데, 사람들이 상여안의 판에 손을 대며 우는 모습이 떠오른다. 41회 뒤에서 누가 제일 많이 우는 가를 지켜보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한다. 이 무슨 소리인가? 낙엽, 죽음을 보며 그녀는 축제, 순환을 생각한다고 한다. 저번 여름 휴가때 한 절에서 독경소리를 테이프소리가 아닌 스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었을 때 아주머니는 춤을 추고 싶었다고 한다. 약간 이해가 가기도 하고...

인터뷰를 끝낸 뒤 인사동 한 갤러리에 갔다. 사진전을 하는데 제목이 ‘침묵의 시간’이다. 가뭄에 갈라진 흙의 모습을 찍은 여러 장면을 전시했다. 필자는 소위 ‘필’이 안오는데 김혜순·이현근 부부에게는 느낌이 오는 것 같았다. “사진을 그것으로 인화했을거야” 등등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주말에 쉬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필자는 그 시간을 문화적 시·공간으로 채우는 혜순이 누나가 멋있게 느껴졌다.

마음이 시원하게 뚫린다.

장덕선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신입회원

산에 오르는 길이
왠지 즐거울 것만 같다. 입구
에서부터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음식집들이 내 눈을 즐
겁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데, 함께 간 선배(구준서
회원)는 내 입까지 즐겁게
해줬다. 하지만, 정말 맛있어
보이는 김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먹다보니 모임 시
간에 많이 늦어버렸다. 아마 이 선배는 먹다가 늦었다는
말은 하지 않겠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여 있다. 거의 모든 분들을 처음
뵙는 자리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선배를 따라
오기는 했지만 여기 저기 인사를 하느라 바쁜 선배를 보
니 괜히 왔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어
쩔 수가 없다. 가자!

선생님들과 어머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동이 조금 늦다. 하지만, 나에게는 잘 된 일이 아닌가. 지난 초봄에
산에 오르다 눈이 덜 녹은 땅에 지레 겁먹고 중도에 내
려왔던 기억이 있다. 다음에는 꼭 어느 산을 가더라도
정상까지 오르자고 마음먹으며 내려와서인지 아직 그
이후로 산을 오르지 못했는데, 이런 속도로는 정상까지
못 오를테니 안심이 된다. 어렸을 적에는 무서움 없이
산을 날아다녔는데 어느새 이렇게 겁이 많아졌다. 하지
만, 더 늦기 전에 어렸을 때의 모습을 되찾고 싶은 마음
은 간절하다. 많은 선생님들을 뵈면서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본다.

점심밥을 먹는다고 한다. 아니, 이런! 자리 찾는데에
만 10여분은 족히 걸리다니.. 현데, 선생님들 중 한 분이
“지도에 잘 따라야지..”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인상적



이다. 드디어 밥을 먹지만
창희선배 옆에 있어야 맛있
는 걸 많이 먹는다고 하더
니, 이번에는 아닌가보다.
다른 선배들이 어머님들 계
신 자리로 부지런히 먹을 걸
가지려 간다.

밥을 먹고는 ‘만경대’로
자리를옮긴다. 민가협 양심
수후원회가 북한산의 만경
대에 빗대어 도봉산에서 절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그리 명명했다고 한다. 조금만 앞을 내다봐도 금방
떨어질 것만 같다. 저기 멀리 보이는 산들이 이리저리
겹쳐있으니 정말 어딘가 멀리 여행이라도 온 느낌이다.
마음이 시원하게 뚫린다.

그곳에서 인사를 했다. 역시 난, 한참 막내다. 선생
님들의 귀한 말씀도 듣고, 창희선배가 준비해온 ‘9.11
미국테러’에 관한 시사자료도 읽었다. 역시 창희 선배
는 말을 참 잘한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다. 어느
새 매표소까지 내려와 뒷풀이 장소로 간다. 앗! 식사를
한 후 노래방 기계를 틀었다. 어머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노래를 하시는데 선배들에게까지 마이크가 넘어온다.
순간, 제일 막내라는 간단한 소개로 나에게까지 마이크
가 넘어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밀려왔다. 밖으로 슬며
시 나와 바람을 쐬고 있다.

오늘은 어떻게 하루가 지났을까. 처음 오른 도봉산
이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 일주일 가량의 운동량을 하
루에 해치워 버렸으니 근육에 무리가 갈 법도 하지만,
고시학원과 집만을 오가며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나
로서는 다소 신선한 시간이었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바다를 보러 간다

김혜순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제암리 순국 23인묘소 앞에서.

'우리는 바다를 보러 간다.'

어느 대만 작가의 성장 소설 제목이다. 10대 중반의 어린 소녀가 아버지를 따라 북경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문명과 접하게 되는 내용을 담담하게 그린 글이다. 우리도 역사의 길을 밟혀줄 그런 바다를 보러 간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차에서 내리니 바닷가임을 알리는 매서운 바람과 비린내가 물씬 풍기고 선창으로 향하는 길목엔 몇 개의 횟집만이 쓸쓸하게 불빛을 밝히고 있다. 바람이 아주 세다. 바다 가운데는 희미하게 떠 있는 두 개의 작은 섬만이 불빛 속에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오른쪽 해안 능선은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다. 50여 년에 걸친 미군의 폭격에 아주 사라져버렸다는 하나의 섬은 형체도 없고, 소나무 숲이 울창했지만 이제는 벌건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나마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농섬과, 윗섬만이 폭격이 없는 오늘 오랜만의 평화에 파도의 애무를 받고 있었다.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오늘은 토요일이니 잠자

할 뿐이다. 어제도 그제도 폭격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뿐만이 아니라 태평양 근처의 미군기지에서 출정해 함께 폭격을 해댄다니 얼마나 만만하면 그럴까. 그것도 민간인 거주지역에서의 이런 폭격 훈련은 세계 역사에 유래가 없다고 한다. 쉴새없이 육지와 바다에서 밤낮(폭격은 보통 밤 10시까지 계속된다.)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된 폭격으로 매향리 사람들은 12명이나 자살을 했다. 올 들어서만도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잊은 오폭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소음으로 임산부가 유산이 되고 사람들의 성격도 포악해졌다. 일종의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1968년 박정희 군부가 마을 한가운데의 토지를 수용해 육지사격장을 만들어도 큰소리 한번 낼 수 없었다.

그래도 땅이 재산인 시골 사람들은 조상의 삶터이자 고향인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워낙 삼엄하던 시기라 외부의 투쟁지원이 있어도 혹시나 하던 생각에 지원조차 마다해야 했지만, 투쟁은 계속되었고 올해 들어서는 마을 상공을 저공비행하면서 폭격을 일삼던 육지사격장을 폐쇄시키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것은 출발은 작지만 한반도 곳곳에 생채기를 내며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반란 투쟁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일이라 하겠다.

마을의 창고 하나를 빌어 생활하는 전민규 위원장님의 집에는 기관총탄이 장식품처럼 놓여 있고 여러

단체에서 보내온 격려의 소리와 투쟁의 흔적들이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그동안 투쟁의 과정에서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면서도 싸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역사가 이만큼이나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첫답사지인 제암리교회에서 한 덩어리로 엉켜 학살당한 선열들의 모습이 중첩되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을 쟁취 하려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천도교와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이 지역의 만세 운동을 주도해 나가자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의 앞잡이와 경찰들이 제암리 교회에 마을 주민 23명을 모아 놓고 불을 질러 학살한 사건이다. 안씨 성을 가진 동족 부락인 이 마을의 뒷산에는 그때 희생당한 분들의 합장묘와 함께 기념관이 서 있는데 이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은 일본인들이 사죄의 뜻으로 기금을 모아서 지었다 하니,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선열들의 민족 구국의 일념을 전파하는데는 미처 손을 쓰지 않으면서도 독재자의 기념관을 지으면서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태도가 정말 한심스러웠다.

8시가 가까워서야 용주사 근처에 여장을 풀고 늦은 저녁을 먹었다. 여러 번의 역사 기행을 다녀봤지만 음식이 이처럼 맛이 없고 성의없는 집은 처음이다. 다음 날 아침도 이렇다면 밖에 나가서 먹겠다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다. 배가 고파서 먹었지 여염집 식사만도 못했다. 그러나 저녁 뒷풀이는 꽤나 풍성했다. 대하가 나오고 돼지 숯불구이도 준비됐다. 동태찌개도 있고. 숙소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안주의 풍성함만큼이나 재미난 뒷풀이가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놀았다. 내일의 답사를 위해 재우고 싶었지만 어른들은 놀면서 아이들만 자라고 하면 되겠냐는 모지희의 충고가 있었다.

이런 자리엔 역시 민요가 최고다. 대학 때 탈퇴에서 활동했다던 김희정씨의 뱃놀이는 우리 모두를 노젓는 뱃사공이 되게 했다. 그 흥을 이어가려 퀸 선생님은 강강술래를 청하셨지만 난 그 흥을 이어가지 못했다. 다음엔 꼭 강강술래 완창을 하리라!! 새벽 4시에 있다던 처녀총각 미팅은 잘 진행되었는지, 유부녀인 난 참가비가 무서워서 일부러 잠을 잤다.

어젯밤에 한상권 교수님이 형식적이나마 백성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고 소외된 지역과 농공상인들을 대우해주며 근대의 민족 부흥을 꿈꿨던 정조 대왕의 개혁정치에 대해 많은 말씀이 계셨다. 이 분야가 한 교수님의 전공이라서 우린 오랜만에 재미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의 답사는 다 정조 대왕과 관련된 곳이다.

마당 있는 집에서 기분좋은 아침을 맞으며 용주사에 갔다. 사람들의 발길이 채 닿지 않은 용주사는 이제 막 잡에서 깨어난 듯했다. 정조가 그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을 수호하고 그의 명복을 비는 능사(陵寺)로 삼아 세운 이 절은 불교가 탄압받던 시기에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 세웠다 한다. 그래서 여느 절과는 사뭇 달랐다. 잡귀를 물리친다는 사천왕 대신 삼문각이 놓여 있고 삼문을 들어서면 천보루(天寶樓)가 관가의 건물처럼 웅장하게 막아서고, 대웅전 정면에는 탑이 서 있어야 하나 이곳은 왕릉의 신도나 어도처럼 길이 똑바로 놓여 있었다. 나중에 자료집을 보니 김홍도가 그렸다는 '부모은중경'의 목판본과 그의 감독 아래 그렸다는 대웅전 후불탱화가 유명하다고 나왔는데 보지 못하고 나온 것이 아쉬웠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태안읍 안녕리에 후에 장조로 추정된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인 현경왕후 흥씨의 합장릉인 융릉과 언덕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 정조와 효의왕후의 합장묘인 건릉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신 융릉의 봉분에는 추존된 왕임에도 화려한 병풍석과 인석을 두르고 무인석을 세웠으며, 문인석에는 금관을 썼다. 건릉에는 왕권과 신권 모두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조선후기 문예부흥을 이룩한 왕의 능이지만 봉분 주변에 난간석만 세웠는데 이를 통해 정조가 아버지를 얼마나 극진히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정조의 효심을 또 엿볼 수 있는 곳이 화성이다. 성곽을 한 바퀴 돌면 무병장수한다며 다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걷고 또 걸으며 자세한 설명을 하신 한 교수님 덕분에 하마터면 놓칠 뻔 했던 방화수류정과 7칸의 수문 위에 세워진 화홍문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질 수 있었다. 팔달산 정상에 있어 성 주변을 살피고 군사를 지휘 하던 서장대에 오르면 성곽과 수원 시내의 모습이 한눈

에 내려다보이는데 단순한 군사적 목적만이 아니라 너무나 과학적이고 아름답게 지어져 1997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실학자인 유형원과 정약용의 설계에 따라 군사적인 목적과 함께 생산과 상업 시설 등 계획성이 있는 도시를 건설한 실학 사상의 결정체로 18세기 동양의 성곽을 대표하는 이 건축물은 축성의 계획, 제도, 법식 뿐 아니라 인력의 인적 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공사 일지 등을 ‘화성성역의궤’에 완벽하게 담아 건축사적 가치도 갖고 있다 한다.

우리는 정조의 능행차가 그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위로하기 위한 거라는 효행의 차원에서 생

각했으나 이는 왕이 구중궁궐을 벗어나 능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백성들을 만나고 노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숨은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성의 축조 또한 계획 도시를 세워 천도하려 했다는 설보다는 자신이 왕권을 물려준 뒤 이곳에 머물면서 외곽에서 노론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조선조에서 정조와 함께 개혁정치를 실시하고 백성들의 질병치료와 생산력 증대를 통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한 성군이며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능인 영릉은 시간이 늦어져서 빼고 바로 고달사 터로 향했다.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마을에서 고만고만한 논밭들을 지나고 야트막한 야산에 오르니 이곳이 고려 시대엔 사방 30리가 모두 절땅이었고 수백명의 스님들이 수행했다던 혜목산 고달사 터다. 구산선문 중 봉림산파의 선찰로 원감국사 현옥의 법통을 이은 진경대사 심희는 원종대사 찬유에게 법통을 잇게 하니 광종 때까지 왕실의 돈독한 귀의를 받은 원종국사가 고달사의 주지로 머물면서 전국 제일의 사찰로의 면모를 갖추었다 한다. 넓적한 돌들과 기와편들이 스산하게 흘러진 가운데에 선 이 아주 굽직하면서도 섬세한 연꽃무늬로 조각된 석불대좌(보물 제8호)가 놓여 있는데 그 크기로 보아 불상이 얼

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다. 강렬한 힘을 느끼게 하는 원종대사의 부도비 귀두와 이수(보물 제6호)만이 천년의 세월을 견뎌내며 절터의 주인으로 남아 있었다. 산을 조금 오르니 원감국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 제4호인 부도탑이 나온다. 얼마나 아름답고 균형미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가족들이 끌어죽는지도 모르고 불사에 혼을 바쳤다는 고달이라는 석공의 혼을 만나는 듯했다. 이렇듯 우리는 천년이 흐른 고달사의 석조물들에서 과거 선조들을 만나고 그들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의 혼적을 남기고자 했는지 느낀다. 우리 시대 문화 역량을 통틀어



국보4호 고달사지 부도 앞에서

서 88올림픽을 기념하여 수십억원을 들여 세운 ‘올림픽기념탑’에서 천년 후의 우리 후손들은 무엇을 느끼게 될지 두려워진다는 한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이 갔다.

역사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천년의 과거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작업을 시작했다. 여기저기에 흩어진 우리 역사의 혼적들이 우리 삶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었다. 일제의 탄압을 뚫고 일어섰던 제암리가 그렇고, 민족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향리가 그랬다. 임란과 병자호란의 치욕을 딛고 다시 민족의 부흥을 꿈꾸던 정조 대왕이 우리에게 민족의 번영을 이루라 소리없이 외치고 있었다.

마지막 피해자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선생님 이하 회원 여러분!

이렇게 편지로나마 받아보게 되어 양심수후원회 여러분들의 가열찬 투쟁과 활동을 전합니다.

밖에서 이야기로만 들었으나 실제 안에서 이렇게 직접 받으니 뭐라 제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날씨도 선선해지는데 허전한 가슴을 훈훈하게 덥혀주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줄어드나 했는데 다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던 차에 저의 방심으로 빨리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춘천에는 형이 확정되어 인천 구치소에서 이감되어 오신 2023번 남궁원씨가 계십니다.

잘은 모르지만 전국노동조합연합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민중대회 위원회에서도 파견되어 일한 경험이 있고 지금은 대우차 공투본에서 화염병과 관련되어 형을 받았다고 그러더군요. 내년 8월 만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강원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에서 간부로 3년간 활동을 한 일로, 국보·집시·폭력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8월 28일 구속되어 아직 소환장은 날아오지 않은 상태이구요. 아마 11월 중순경 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지 못해 들어오게 되어 매우 아쉬워하며 마지막 피해자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공안당국의 수배조치로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강원도에도 3명이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 잘 있기는 하나 주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양심수후원회 여러분들의 묵묵한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을 나가게 되면 그들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덜 만들어야겠죠?

제일 먼저 겨울이 온다고 그래도 월동장비를 모두 갖추어 두었는데 다행히 아직은 따뜻합니다.

양심수후원회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투를 빕니다.

저도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10월 16일 송태윤 올림.

● 송태윤님은 한림대 학생이며, 강총련 간부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많은 고민 없이 카메라 들고 명동성당을 찾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재영형 오랜만이죠?

어제도 그렇고 요 얼마간 밤늦게 들어오곤 하는데 이젠 가을날씨라고 하기엔 너무 찬 것 같고 입동도 지났으니 겨울이라 해야 할까요. 광주가 남도 땅이라고는 하지만 교도소라는 곳이 여전히 차가운 곳이라는 인식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또 실제로도 그렇겠지요.

진작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았을 걸 이제야 편지로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동안 형 소식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이후 소식이죠. 학교에서 사람들과 알끼기 대회(?)를 했다는 믿지 못할 얘기도 있던데… 형의 연행과 구속소식에 놀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8년이라는 수배생활이 어쩌면 형이 수배자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그런데 편지를 쓰다가 생각해보니 그동안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네요. 군대에 있을 때 하루가 멀다하고 편지를 쓰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지만 모두가 감옥에 갇혀있는 친구, 선배에게 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죠?

많은 고민 없이 카메라 들고 명동성당을 찾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영상을 하겠다는 마음만 앞서서 준비없이 서울에 올라온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이후에도 명동성당에 그렇게 자주 찾아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곳에서의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명동성당에서의 싸움에 작은 부분을 거둔 것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양심과 신념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 저 또한 그 속에서 제게 부족했던 모습들 고쳐나가게 되었고 또 모자란 것을 채울 수도 있었는데 정작 제가 누군가를 위해 한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명동성당에서 만났던 얼굴들을 지금도 곳곳에서 만나게 되고 서로 눈인사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분 좋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마다 서울 종로 YMCA앞에서 토요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양심수후원회를 비록한 수배자, 양심수 대

책위들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지난주 캠페인 거리에는 형의 사진이 붙여진 선전물이 등장했어요. 기분 참 이상하더군요. 명동성당에서 수배해제를 외치며 농성을 함께 했던 사람들 중 수배자들은 여전히 수배생활 그리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뒷바라지, 힘을 보태던 사람들은 역시 여전히 그 일을 하게 되구요. 언제까지나 계속 되려는지…

지난 주말에 노동자대회가 있었고 어제는 농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수만명의 노동자, 농민들이 여의도에 모였었지요. 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고 막아나서는 경찰들과 싸워도 보고 허공을 향해서 대나무작대기를 휘저어 보기도 하지만 정작 답을 주어야 할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피가 터지고 물대포에 온몸이 젖으면서 싸우고도 결국 발길을 돌려 추운 저녁 여의도 국회 앞을 힘없이 돌아서는 농민들을 보면서 참 갑갑하기도 했습니다.

아, 어제 선생님들 몇 분 뵈었는데 형 안부를 물으시더군요. 제가 형 근황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 시원한 대답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곧 나와서 서울에 인사차 올라올 거라는 얘기를 면회 다녀오신 분들 통해서 전해들었던터라 그 얘기만 전해드렸지요. 모두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쯤엔 명동도 좋고, 종로도 좋고 마음 편하게 술잔도 기울일 수 있겠네요.

광주에 계시면 그래도 다른 곳에 있는 것 보다 나을까요?

날씨가 많이 찬데 식사 잘 챙겨드시고, 짧은 머리에 환하게 웃던, 언제나 힘찬 형의 모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건강하시구요!!

곧 좋은 소식 있으리라 믿습니다!!

2001년 11월 14일 서울에서

김도균 드림

- 김도균님은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신입회원으로, 지난 봄부터 '국가 보안법관련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자원봉사자로 일해왔습니다. 현재 '한국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자원봉사자 등 디지털 영상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가두는 나라

– 자주민보 발행인 이창기 형에게 –

유병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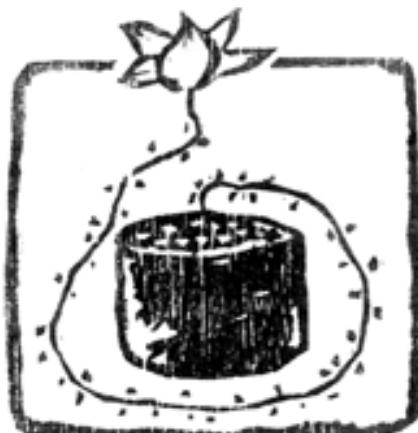
오는 봄마다하고 스스로 겨울이 되는 나라
그 나라 백성됨이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인지
눈물나게 서러운 일인지

하여도
그 나라 밉다며 등돌리지 않고
어허등등 가슴으로 안고
사랑하는 사람들 있기에
실만하다고
아직은 실만하다고

백치같이 착한 그 사람들 있기만하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아마 그리리라고
박꽃보다 환한 형의 함박웃음 떠올리며 생각해봅니다

옛사람 말마따나
'참으로 곧은 것은 굽어보인다' 더니
분단의 청맹과니들 눈에는 그러겠지요
통일도 이적이고
화해의 꽃도 중오의 칼날이겠지요

하여도
하여도
굽은 것이 될 수 없는 곧은 마음을
총구가 될 수 없는 사랑을
맑디맑은 이 겨레는 볼 것입니다
겨레의 샘물을 먹고 자란 모든 이는 볼 것입니다
세상의 잠을 깨우며 보고야 말 것입니다



마침내 백두산 정상에 서다

- 2001 (평양)민족통일 대축전에 다녀와서(2) -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7시 20분, 마침내 2001 민족통일 대축전 개막식이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렸다. 특별한 시설없이 노란색 넓은 방석위에 의자가 놓여진 연단에는 이미 주석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눈에 익은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민족공동행사 북측 추진본부대표,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하여 정당·사회단체 대표, 해외동포 통일축전 참가단 대표들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회색 반팔옷에 훈장을 달고 앉아 계신 홍경선 선생님 모습이 보였다. 홍선생님께서 당당하게 주석단에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나 ‘참관’으로 개막식에 함께한 남측대표단 대표는 그 자리에 없었다. 통일축전 북측 부위원장인 김령성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부회장이 ‘통일조국의 휘황찬 내일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개막선언을 했다. 하얀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 입은 북녘여성 6명이 단일기를 옮겨오고 있었다. 그리고 ‘아리랑’이 연주되는 동안 단일기가 계양되고 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하늘높이 날아오른다. 김영대 북측준비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했다. ‘자주·통일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민족적 가치’라며 자주통일과 민족대단결의 장전인 6·15남북공동선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민족공조, 남북공조로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통일번영을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중앙 상임위 박해로 부의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안경호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연설이 있었



다. 남측대표의 연설은 없었다. 물론 주석단 소개에서도 빠졌다. 다만, 재일동포, 재미동포, 재중동포등 통일운동 대표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자 말에서 남측참가단이 참관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철저히 ‘참관’을 강조하며 남쪽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어 기념식수가 있었다. 주석단 인사들이 기념탑 서쪽광장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홍경선 선생님께서도 함께 하시었다. 나는 다른 취재진들과 함께 그 대열뒤를 쫓았다. 홍경선 선생님 팔을 잡았다. 화들짝 돌아보신 선생님이 놀라신다. 남쪽 사람들이 와 있는 것으로 짐작은 하셨겠지만 주석단 뒤를 쫓아 선생님을 찾는데 놀라신 것이다. 무슨 말이 필요할 것인가! 마주한 순 그 따뜻한 촉감으로 짧은 시간 술한 대화를 하게 된다. 그 급한(기념식수 때문에) 시간에서도 함께 사진을 찍었다. 누군지 모를 북측준비요원에게 셔터를 부탁했었다. 기념식수가 끝나고 기념탑 바로 아래에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양산도 가락에 맞춘 무용, 여성독창, 여성4중주 통일아리랑, 힘찬 울동미의 남성무용 북춤, 우리가락의 가야금합주, 여성민요독창 노들강변등이 이어진다. 그리고 출연진 모두의 한마당 춤판이 벌어진다. 여기저기 객석(?)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장기수선생님도(아마도 합세환 선생님인 듯) 나가신다. 이렇게 축전참가 대표들까지 한덩어리로 어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뒤에 알려진대로 이 개막식 참관으로 남쪽에서는 야단법석이 벌어지게 되었다. 남쪽에서 야단법석을 피울만한, 남쪽을 비판하거나 북쪽입장만을 강조하는 어떠한 발언도 공연내용도

없었다. 3대현장 기념탑 앞에서의 행사참석을 문제삼았었다. 바로 조국통일 3대현장 그 내용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한다면 필자도 3대현장이 무엇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였다. 3대현장이란 남쪽언론에서 자세히 들추어 내었듯이 1972. 7. 4일 ‘7·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1980. 10. 10일 조선로농당 제6차 보고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안’, 그리고 1993. 4.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제기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말한다. 남쪽에서 문제점으로 들고 나온 것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안’이다. 짧게 ‘연방제통일안’에 대한 거부반응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미 남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연방제통일방안을 두고 많은 토론이 있었다. 민족민주진영에서는 자주의 원칙과 통일이란 민족적 과제에서, 그리고 남과 북의 사상·이념, 체제·제도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건에서의 연방제통일 말고 다른 대안이 무엇이겠는지 묻고 있었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말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 ‘실제적 방안’은 무엇이어야겠는가 - 통일된 나라는 하나된 나라이다. 두 나라의 연합은 하나된 나라가 아니다 - 이미 대통령이 서명한 통일방식이다. 연구검토할 방안이자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들 사안이 아니었다. 또한 남쪽 대축전참가단은 ‘참관’으로 초청되어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이다. 개막식‘참관’과 관련된 쟁점문제는 후원회 소식 118호에서 지적되었기에 여기에서는 줄이기로 한다.

출판은 단순한 홍보용만은 아니었다. 남과 북이 만



나고 해외동포가 어우러진 감격의 축판이었다. 겨레의 참뜻이 아니었던 갈림과 격음을 거두어내고 화해하고 협력하여 자주적으로 통일세상 이를 것을 염원하는 축제이기도 했다. 폭염으로 달구어진 대지는 젊음과 열정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나야 했다. 남측 참가단은 미리와 기다리고 있던 버스에 올라 고려호텔로 돌아왔다. 밤 10시였다. 호텔 로비에서는 오늘 개막식에 참가한 일로 또다시 열띤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다. 지도부 일부에서는 앞으로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말까지 들렸다. 그러나 모두는 감정을

가라 앉히면서 예정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참가단은 숨을 고른 다음 북측이 주최하는 2001 민족통일 대축전 경축연회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경축연회는 두 곳에 나누어 열린다고 했다. 고려호텔에서 멀지 않은 평양시 도심에 있는 ‘만수대 예술극장과 대동강 양각도에 있는 양각국제호텔에서였다. 내가 간 곳은 만수대 예술극장이었고 도착했을 때는 10시 50분이었다. 넓은광장과 분수공원이 있는 예술극장은 웅장하면서도 조형미가 뛰어난 하나의 미술작품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1976년 10월에 준공되었고 건축면적은 6만평방미터라고 한다. 내부에는 크고 작은 연습실, 조명 조작실, ‘메이크업’ 실, 소극장과 큰 휴게실, 귀빈실, 입체록음 ‘스튜디오’와 조작실, 컬러TV방송시설등 최신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2000평방미터의 수천명이 출연할 수 있는 높이 40미터의 회전무대도 있다. ‘구룡연계곡’ 등 대형벽화가 있고 대리석으로 장식된 중앙홀을 지나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넓은 연회장은 공연무대가 떨려있었다. 1000여명이 넘는 남과 북 해외 참가단이 식탁마다 함께 하고 있었다. 참가단은 ‘2001 민족통일대축전 경축연회에 초대합니다’란 북측준비위원회의 초대장을 받고 있었다. 원래 계획은 20시(오후8시)였

었지만 3시간이 지난 시간에 연회가 열리게 되었다. 연회장 맨앞에는 주석단 테이블이 있었고,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안경호 조평통 부위원장, 김영대 사회민주당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등 얼굴이 보였다. 그 밖에도 재일총련 박해로 부의장, 렘순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박순희 조선전국여성동맹 중앙위원장, 승상섭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황만길 평양시 인민위원장, 강승수 문화상(장관)등이 주석단에 함께 했다고 기자들이 말하고 있었다. 남측공동추진본부에서는 신창균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을 비롯한 통일연대, 종단, 민화협 지도부가 주석단에 함께 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통일위업을 이루어 내는데 노력하자'는 요지였다. 푸짐한 요리가 차례로 나오는 테이블마다엔 술병과 음료수병이 한아름씩 있었다. 백두산들쭉술을 비롯한 북녘에서 이름있는, 높은 알콜 도수가 있는 술들이었다. 벌써 독한 술에 얼근한 테이블마다 건배를 외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자주통일을 위하여!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하여! 남과 북 해외동포가 한 테이블에서 민족적 과제를 함께 외치는 것 이었다. 그리고 무대에서는 만수대 예술단의 여성 2명이 '고향의 봄' 합창을 비롯 연회장 분위기에 맞는 실내악이 연주되기도 했다. 예술단의 노래공연이 있을 때마다 연회장 이곳 저곳에서 꽃묶음을 갖고 출연자에게 안겨주는 참가단 모습도 보였다. 연회는 자정을 지나 16일 1시 30분까지 이어졌고 1시 50분에 호텔에 돌아오게 되었다.



16일 평양방문 이틀째가 밝아왔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으나 몸은 가벼웠다. 커튼과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 본다. 궤도전차가 빈번하게 가고 오고한다. 거리엔 출근

하는 시민들의 바쁜 발걸음도 보였다. 맛은 편 고층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도 눈에 띠었다. 세면을 하고 2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이미 많은 참가단이 뷔페식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9시부터 2층 영화관에서는 참가단 전체회의가 열리었다. 대축전 개막식에 다녀온 문제 그리고 오늘 또다시 폐막식 참석문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1시간이 지나고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데 뜻을 모았다. 10시 참가단은 창광거리, 만수대거리를 거쳐 옥류교(대동강다리)를 건너 대동강 구역 주체사상탑거리에 있는 중앙청년회관으로 갔다. 남과 북 해외 청년학생들이 벌이는 '새 세기 청춘들의 통일연대무대' 공연이 계획되어 있었다. 10시 30분 회관에 들어서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북측 청년·학생들이 큰 박수와 환호로 마중하고 있었다.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통로마다 안내와 마중인파가 있었는데 청년들의 기개와 열정, 그리고 조국사랑에 대한 헌신성을 나타낸 '청년영웅도로전시관'도 있었다. 평양-남포간 고속도로(청년영웅도로) 건설에서의 장한 모습들이었다. 이 회관은 길이 240미터, 폭 100미터, 높이 50여미터의 연건평 5만 9000여 평방미터나 되는 대형건축물이었다. 회관의 제1동은 휴게실, 응접실이 있고, 2동에는 2000석 규모 극장과 20여 연습실, 분장실, 오락실등이 있으며, 3동에는 1층부터 3층 까지 확 트인 1000여석 다기능 홀로 집회, 무도회, 오락회등에 이용되고, 4동에는 600석 극장과 4개의 250석 규모 회의실등이 있다고 했다.

축전 참가단이 자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변화로 장식된 2,3층 베란다에 서는 청년학생들이 꽃술을 흔들며 함성으로 손님을 맞고 있었다. 11시 참가자 소개로부터 통일연대 무대는 막을 올렸다. 북측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학

생위원회, 범청학련북측본부, 남측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전대협동우회, 종교청년회가 함께 했고, 해외에서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중조선인청년동맹등 축전 참가단의 참관자까지 2000여명이 함께 했다. 그리고 남·북·해외 청년학생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최 일비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의장, 재일한국청년동맹 최종수대표가 연설을 했다. 무대 양쪽으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8·15 평양〉 〈남북해외 청

년학생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기수가 되자!〉 등 플랭카드가 걸려 있었다. 공연무대가 열렸다. 북측출연으로, 여성4명 합창 ‘우리 민족 제일이다’, 독창(여성) ‘고향의 봄’ ‘휘파람’을 불렀다. 그리고 한총련, 재일조선인청년동맹 대표의 연설이 있었다. 북측의 남성2중창 해방의 노래(?), 여성독창 ‘심장에 남는 사람’ 남·녀 합창 ‘까투리타령’으로 이어진다. 큰 박수도 이어졌다. 이어 남측에서 전대협동우회 정창래 부회장이 임수경씨를 소개했다. 홀안이 온통 환호와 박수로 떠나갈 듯 했다. 임수경씨에 대한 북녘동포들 특히 청년학생들의 열광과 기대를 점쳐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다음으로는 김책종합대학 최 학 학생대표의 연설이 있었고, 해외청년학생의 통일의 노래 통일아!통일아!, 재일청년학생의 ‘사물놀이’에 이어 인민학교 어린이들의 주석단에 꽂沐음을 안겨주는 시간과 노래와 춤, 기악등 기량을 뽐냈다. 마지막엔 출연자, 참관자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한마당 춤판을 벌였다. 필자도 그 대열에 묻혀 있었다.

오후 1시 40분 청년문화회관을 떠났다. 2시 대동강가에 자리한,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 도착했다. 옥류관 냉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했기에 더 보탤 말이 없다. 지난해 조선로농당 창건 55돐 참관때도 들렸



던 곳이었다. 1960년대 문을 열었으나 1988년 확장된 민족적 형식의 대중식당이다. 본관을 중심으로 좌·우에 별관을 갖춘 연건평 1만 2500평방미터라고 한다. 강가에 있는 특성과 민족적 건축양식에 근대적 미감을 갖추고 있다. 옥류관에서의 냉면먹기는 미리 알아둘 일이 있다. 냉면이 나오기 전 맛 있는 음식이 많이 나온다. 사람들은 나오는대로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정작 냉면이 나올 때쯤이면 배가 불러 그 특유의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없게 될 수 있다. 가령 이러한 음식을 마음속에 음미해 보시라. 합성떡, 낙지숙회, 과일흰즙 랭채, 청포국, 칠향개쌈찜, 김치, 농두지침, 생선속찜, 소갈비빔은행찜, 그리고 국수(냉면)가 나온다면 국수맛이 어떻겠는지? 그밖에도 수박, 크림, 인삼차가 더 나온다. (이 차림표는 당창건 55돐 경축행사때 나왔던 것으로, 이번에도 비슷했지만 차림표를 기억할 수 없었음) 그래서 조심할 일이 있다. 옥류관을 찾는 손님이 냉면 한 그릇으로 마친다면 이곳에 일하는 분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세 그릇을 거뜬히 비울 수 있을 정도의 그 맛에 자신이 있다는 말이다.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대동강가에 나와서 능라도 5·1경기장, 대동강분수와 주체사상탑 등을 배경으로 사진찍기에 바빴다.

3시 인민문화궁전에 도착했다. 남과 북이 공동주최한 ‘일제만행 및 역사왜곡책동 공동사진전’이 준비돼 있었다. 인민문화궁전은 지난 해 ‘55돐’ 경축행사때 와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초청 만찬때 있었던 곳이었다. 정문을 들어서면 우선 그 넓은 홀과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기둥과 벽과 바닥을 보게 된다. 그리고 북쪽의 건설상을 형상한 대형 모자이크 벽화 앞에 서게 된다. 공동사진전은 바로 이 홀에서 열리고 있었다. 남과 북에서 준비한 역사왜곡과 식민지지배 만

행에 대한 사진과 기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남과 북 해외 참가단 1000여명이 들어선 가운데 공동사진전 개막사를 조선사회과학원 김세민 부원장이 하였다. ‘일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과거역사왜곡에 이중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정의와 량심에 대한 우롱이며 평화와 진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민화협 손장래 상임의장이 남측대표로 연설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저지시키고 통일조국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뜻깊은 행사’ 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남과 북 해외 참가단은 ‘일제의 사죄와 보상, 군국주의 부활책동반대, 역사왜곡중단, 외세침략반대’ 등 내용의 ‘공동결의문(종단대표 한양원장)’을 채택했다.

3시 40분 공동사진전 관람을 마친 뒤, 예정에 따라 부문·단체별 모임에 들어갔다. 집행부에서 노동자, 농민, 통일운동, 여성, 문화예술인, 종교인, 경제인등 남과 북 해외대표가 함께할 방들을 알리고 있었다. 양심수후원회는 상대단체가 없었기에 통일연대 소속으로 통일운동모임방으로 갔다. 북측에서는 민화협 대표들이 왔다. (북측 민화협은 남측 민화협에도 대표를 보내고 있었다) 사회민주당 위원장인 김영대 민화협의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허혁필 민화협부의장이 나왔다. 황건(4월혁명회), 한상렬(통일연대), 천영세(민주노동당), 오종렬(전국연합), 윤한탁(실천연대), 이천재(전국연합), 전창일(민화협), 박기래(통일학교), 주종환(민화협), 서창호(목포대), 이준희(민화협), 이정이(부산연합), 노수희(전국연합), 강정구(동국대), 고영대(자동협), 박심배(박승희열사아버지), 심의섭(명지대), 김영기(민예총), 김택진(제주4·3), 권낙

기(통일연대), 남규선(민가협), 권오현(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여러분이 함께 했다. 김영대 민화협의장과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인사에 이어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단한 자기소개시간에 몇 분들의 긴 시간이 걸려 ‘소개시간’으로 통일연대 통일운동 부분모임 시간은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 모임만으로 부분별 대화가 모두일 수는 물론 아니었을 것이다. 참가단은 다음 일정에 맞춰 모두 인민문화궁전 앞마당으로 나왔다. 문화궁전의 웅장한 건축물을 배경으로 사진찍는 이들이 많았다. 이 건물은 근로자의 사상·문화교육과 문화적 휴식을 위한 대전당으로 크고 작은 500여개의 방이 있고 건축용지 8만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만 5000평방미터, 연건평은 6만평방미터로서 지하와 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700석의 소회의장, 3000석의 대회의장, 700석의 대연회장을 비롯해 회담, 면담, 휴게용 방들이 있고 여러 가지 회합을 할 수 있는 많은 방들과 넓은 흘이 있으며 중·소연회장, 소영화관 등이 있다고 한다.

오후 5시 문화궁전을 떠나 5시 20분 봉화예술극장에 도착했다. 평양시의 동북쪽에 위치한 이 극장은 1982년 7월에 준공한 연건축면적 45,900 평방미터에 2000석과 800석 규모의 두 극장이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연습실등 수십개의 방이 있고 극장에는 직경 10미터의 이동식 회전무대, 방창용 이동무대, 수평이동무대가 갖추어져 있으며 음악, 무용공연을 비롯 전문극단이나 애술서 어클럽 등 다양한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고 한다. 바로 이 무대에서 ‘북·남·해외 예술공연’이 열리게 되었다. 첫 무대로 남측의 이정렬씨 독창 ‘소낙비’ ‘내나라 내겨레’ ‘남누



리 북누리’가 있었고 다음으로 임수경씨의 시낭송 고문익환 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이 있었다. 임수경씨 무대등장으로 또 한차례 열광적인 환호를 불러 일으켰다. 이어 해외동포 김양현씨의 독창과 피아노반주, 최선화씨의 독무, 2인기악이 있었다. 다음으로 북측공연은 무용 ‘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무대배경그림은 공연



내용에 따라 변하고 있었다. 배경그림정도가 아니라 나뭇잎이 흔들리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움직이는 그림이다. 피아노반주와 함께 여성독창 ‘산으로 강으로’, 여성 5인의 북춤, 남성독창(김일) ‘압록강 2천리’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 예술무대의 압권은 아무래도 무용극 (?) ‘눈이 내린다!’였다. 무용과 음악과 효과음, 그리고 배경그림(실제로 눈이 내리는 모습등)만으로 ‘붉은 여전사’가 압제에 항거하며 마침내 승리로 이끄는 내용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시대정신을 형상하는 군중무등 뛰어난 예술적 기량들이 두고두고 여운을 남기게 하였다. 관중을 울분과 분노케 하는가 하면 열광과 환희로 치닫게 하고 그리고 숨직이게 했다가 평온하게 하는, 말없이 이어지는 춤속의 이야기였다.

7시 지나 봉화예술극장을 떠나 고려호텔로 돌아왔다. 저녁식사를 하고 추진본부 예고에 따라 참가단 모두가 영화관에 모였다. 오늘 오후에 있을 민족통일 대축전 폐막식에 함께 하는 문제로 다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잘 것인지, 아닌지 어느 쪽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게 양쪽 주장은 팽팽하기만 했다. 지도부는 장소를 옮겨 논의하고 있었지만 개막식때처럼 시간만 보내고 있

었다. 마지막으로 추진본부 지도부 30명만 대표로 참석하는 안이 나오고, 기념탑까지 아니어도 돌아오는 사람들을 마중하기 위해 충성의 다리 건너까지라도 가자는 말도 나왔다. 답답한 논의들이었다. 그러는 동안 9시에 폐막식이 이미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론을 기다리다 지친 많은 사람들이 폐막식장으로 떠났다. 그리고 폐막식은 끝났고 기념탑 앞에서 야회(밤무도회)가 무르익고 있었다. 갖가지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남쪽 참가단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연스럽게 흥겨운 원무대열에 함께 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기념탑 남쪽 원편에 자리하고 계신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을 뵈올 수 있었다. 또 한차례 열싸 안고 반가움과 기쁨을 나누었다. 일부는 춤판에 어울리고 있는 듯 자리가 가끔 비어 있었다. 어떤 기자가 묻고 있었다. 어떤 생각이냐는 뜻일게다. 기쁘다고 말했다. 10여년 이상 존경하고 정들었던 분들이었고 북녘에서 유일하게 서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다. 남쪽에서 왜곡 과장보도와 수구냉전논리로 야단법석인 것을 오늘 알고 있었지만 부당하게 갈리었고 맹목적으로 겨루었던 통한의 반세기만에 이렇게 남과북, 북과남이 어떠한 가식도, 사상·이념 대결없이 한핏줄 한겨레로 만나는, 뜨거운 가슴만으로 만나는 이 역사적 순간에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11시 반 호텔로 돌아왔다. 2001 민족통일 대축전 공식행사는 모두 끝난 셈이다. 모처럼만의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회한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개·폐막식에 참관을 하고 야회에 함께 한 것으로 스스로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 남·북 문인들은 벌써 거나해 가지고 열심히 무언인가 토론하는 듯 싶었다. 남북, 북남 농민·노동자대표도 한잔 씩 하고 있었다. 오종렬, 정광훈, 천영세, 권낙기 선생과 그 밖의 여러분들이 이미 자정을 지나 새벽이 가까운 시간을 잊고 있었다.

아이들은 나의 선생님

정은주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으앙! 엄마! 지호가 날 때렸어요.”

5살난 지윤이가 울며 달려온다. 가서 보니 누나가 가진 핀을 뺏으려고 지호가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지호야! 누나 핀, 유치원 언니가 선물로 준 것이라서 줄 수 없대.” 말해도 아들은 막무가내다.

“지윤이가 양보하면 안될까?” “싫어! 이거 노현이 언니가 준거란 말이야!”

이럴 땐 난감하다. 선물 받은 걸 주기 싫은 지윤이 마음도 알겠고 누나 짓이면 다 좋아 보이는 아들 마음도 알겠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호야! 엄마가 다른 핀을 줄게.”

다른 핀을 가진 아들놈이 다시 누나 것을 욕심 내길래,

“지윤아!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일이다.

감정이 여리고 예민한 딸아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을 데도 수줍어서 나서질 못한다. 어린 나이에 동생을 봐서 그런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남다르다. 잘 때는 꼭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는 꼭 빼지지 않는다.

아들 녀석은 행동에 거침이 없다. 아무리 낯선 집에 가더라도 그 집 세간살이를 점검하고 만다. 가지고 싶은 것은 가져야 직성이 풀린다. 키는 좀 작아도 어디가나 터프해서 형들도 울리기 일쑤다.

여린 놈은 여린 대로 대찬 놈은 대찬 대로 키워야 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틀을 아이들에게 고집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저희가 싸우든지 뭘 하든지 내버려두면 되는데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를 한다. 요즈음은 딸아이가 컸다고, 혼내고 나면 “엄마! 나 미워하지?” 하며 뒤통수를 친다. 아이들은 부모의 훈계가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배운다고 했던가! 초기에 두 녀석이 싸울 땐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벌을 주기도 했다.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혼을 내기도 했다.

그래도 이만큼 감정을 추스를 수 있었던 것은 남모를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가 들 때가 많았다. 그래도 대학 때는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열심히 싸웠는데, 작은 집안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며 살자니 회의가 들 수밖에…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이들을 대하면서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독재자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았다.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힘든 상황에 아내로서, 엄마로서, 주부로서 몇 개의 역할을 하려니 너무 힘들고 벅찼다.

아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부터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다른 역할들은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겠지.

아이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맘처럼 잘 안되고 해서 PET(부모교육훈련)라고 8주간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기술을 공부했고 또 나를 알고 싶어서 MBTI(성격검사)도 해봤다.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남편과 토론도 해봤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고 화가 날 때 자제를 못하는 점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성격검사를 하면서 내가 모르던 나의 성격을 알게 되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전보다는 더 넓은 세상이 보인다. 내가 내린 해답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기쁠 땐 기쁜 감정을, 슬프고 화날 땐 그 감정 그대로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오히려 해결이 빨리 되었다.

“지호는 누나가 가진 장난감이 갖고 싶니?”, “넘어져서 많이 아프겠다, 지윤아” 하면 “네”하고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는 게 보인다.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진 않은데 조금씩 시도해 보고 있다. 누가 내 마음을 알

아주면 물꼬가 트이듯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나도 경험한 바가 많다. 이런 시절을 기억해내는 것만으로 아이들과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면 과장일까?

내가 지윤이 만할 때 일인 것 같다. 엄마의 장바구니를 들어준다는 게 그만 안에 있던 계란을 깨뜨려 버렸다. 엄마에게 무지 혼났다. 난 장바구니 안에 계란이 있는 것을 몰랐고 단지 엄마를 돋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또 하나의 나와 싸운다.

“그때 왜 지윤이에게 화를 냈니? 지윤이가 모르고 한 것인데…”, “너의 감정에 솔직해! 사실 네가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에게 말하는 또 하나의 ‘나’가 있다. 또 하나의 나는 나를 깨우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 또 하나의 나는 아이들 눈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다.

- 정은주 님은 1993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 구속자로, 지금은 주부이자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편집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광고

열세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이 12월 1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새세기의 첫 해 '양심수없는 세상' 을 꿈꾸었지만,
우리는 '양심수가 있는 세상' 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수 어머님들의 절규인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가
400회를 넘은 지금, 끈기와 인내를 모아
다시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추스르며
열세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준비합니다.
세월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좋은 꿈을 모아
희망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 때: 2001년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 곳: 장충체육관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 문의: 763-2606(사무실), 888-4470(모임방), 019-205-7937(이창희)

비내리는 관악산 기슭에 어머님들의 웃음꽃이 피어난다.

송창학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원

“형님! 비도 오는데 노래
나 한 가락 하쇼!”

“음, 그럴까! 잘들어. 하
나밖에 없는 나의 18번이
니까. ♪나 태어나 이 강산
에 투사가 되어~♪”

비내리는 관악산 기슭에
아줌마들의 웃음꽃이 피어
난다.

올해로 14번째.

서울대 대동제때면 어김없이 교정 한 쪽에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아들, 딸들의 석방투
쟁 기금 마련을 위한 민가협 장터가 열린다.

기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한 장터였지만 이제는 오가
는 학생 손님들이 모두 내 자식처럼만 보인다. 그 때부
터 장사는 뒤이고 한 점이라도 더 주기 위해 푹푹 눌러
주는 접시에 어머님들의 사랑이 음식물의 높이만큼 아
니, 그 이상으로 쌓여만 간다. 이런 어머님들의 마음을
알기에 간사의 눈흘김조차도 악의 없이 따뜻하고 더 정
겨운 민가협 장터.

그런데 이상하게 서울대는 대동제때면 어김없이 비
가 내린다. 그래서 가물 때 기우제보다 장터를 여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번 가을 장터때에도 연 이틀 비가 그칠 줄 모르고
하염없이 내린다. 쏟아지는 빗속에 이리저리 분주한 자
봉단과 음식재료 준비에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시는 어
머님들. 5일간 계속되는 장터가 피곤도 하고, 내리는 비
에 매출이 걱정될 법도 한데 모두 밝은 표정이다.

하루 저녁, 어머님들을 도와 양심수후원회원들이 프



라이팬을 하나씩 차지하고
나란히 선다. 그 중엔 이미
결혼을 하여 아이들의 엄마
인 사람들도 있고 아직 결혼
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
를 아가씨들도 있다. 그런데
역시 부침개 한 장을 부쳐도
뭔가 다르다.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도구를 써서 하는 일
임에도 역시! 그리고 매일

싫은 내색 한번 안하고 시종 깔깔대는 웃음과 귀여운 장
난으로 피곤을 이겨내며 커다란 짐통에서 작은 숟가락
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남학생, 여학생들도 어찌나 예
뻐만 보이던지…

민가협장터에서는 단순히 어머님들의 손맛과 후덕한
인심만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다. 양심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치 당신의 자식, 형제들에게
하듯이 칠순이 넘으신 의장님부터 어머님들, 자봉단들
모두가 힘을 모아 여는 장터는 단순히 부침개 몇 장을
필아 투쟁기금을 마련하는 장터라기보다 어머님들의
더 큰 사랑이 꽂피는 장터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송년모임 안내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2001년 회원 송년모임

어김없이 겨울이 옵니다.

계절은 자신의 갈이로 한 해가 다갔음을 알립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석방”의 목소리는 높아감에도 여전히 양심수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추워지는 겨울, 서로의 어깨를 걸고
어제 뜨거운 정으로 서로를 격려, 후원했듯이
오늘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내일 새해를 힘차게 맞이합시다.

장기수 어르신들,
민가협 어머님들,
그리고,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 언 제: 2001년 12월 16일
 낮 12시(일요일)
- 어 디 서: 광화문 새서울주몰럭(세종문화회관 뒤)
- 문 의: 02)763-5797

6.15공동선언이행과 국가보안법폐지 및 양심수석방을 위한 거리캠페인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받은
각 대책위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5시

장소: 종로 YMCA앞



해외 민주화운동 평가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민주화운동에서 해외동포의 역할”

- 1부: 미국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김민웅:뉴욕 길벗교회 목사)
- 2부: 일본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양병택: 일본 한통련대책위 추천)
- 3부: 유럽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이종현:유럽 한민족연대)

- 일시: 11월 29일(목) 오후2시~7시30분
- 장소: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 02** 사회당 조직부장으로 민족통일운동에 헌신해 오던 중 5·16군사쿠데타로 겨우, 사법처형당한 故 소암 최백근선생 40주기 맞아 함께 활동했던 김영옥, 황금수, 김병원 선생님과 그 외 여러분들 망우리 묘소찾아 참배 - 이어 죽산 조봉암선생 묘소도 참배.
- 03** 2001 통일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와 구속된 범민련 광주·전남 임동규선생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함.
- 04** 민가협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림. 목요집회 400회 준비.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2. 15일로 확정 등.
- 민가협 목요집회 396회가 열림. 김대원씨 석방촉구 주제로 임기란 상임의장 여는 말, 김대원씨 동생 김근영씨 후배 김희정씨 민가협 간사 박성희 씨의 석방촉구 사례 발표, 조순덕 구학협 부회장의 청와대에 보내는 석방촉구문 낭독 등
- 06**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기획모임 충주호로 1박2일 모꼬지 가다. 송창학, 노혁, 장재영, 이정태, 이승미, 양계숙, 신현익, 이득행, 변의숙, 고광희, 이창희 회원 등이 함께 함. 역사기행, 토요캠페인, 민가협 장터참가 등에 대해 논의함.
- 07** 남민전 준비위원회 중앙위원회로 유신파제에 반대하다 피검돼 사법처형당한 故 민성 신향식선생 19주기를 맞아 유족과 옛 동지들 경복고 후배 동문 등 50여명 광주공원묘지 고인의 묘소에서 추모모임을 가졌음.
- 08** '양심수석방기금 마련을 위한 민가협장터'가 서울대 대동제기간(8~12일)동안 서울대에서 열렸음. 장터를 열고 있는 동안 송창학, 나정옥, 이승미, 변의숙, 유선화, 주경임, 조경래, 유영순, 정은주, 양계숙, 고광희, 이창희 회원 등이 일손을 도와드렸고 안병길, 김지영, 이정규, 한상권, 김호현, 모성룡, 이정태, 송경용 운영위원회이 들려격려했습니다.
- 기독교연합회관 902호실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8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상반기 통일연대 사업평가안과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와 신입회원가입을 승인함.
- 새벽 1시(서울시간) 미 '아프간'에 대대적 공습, 미사일 공격. 수도 카불 등 30여개 목표물 파괴. '아프간'과 빙 라덴 민간인 20여명 숨졌다며 미국에 대한 성전(지하드)선언.
- 용산 미8군사령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미국의 보복전쟁 반대' 긴급집회를 열고 전쟁 즉각 중단과 정부의 지원반대를 촉구.
- 09** '추모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서 민주화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남상현, 오종렬, 홍근수, 박원순, 권오현과 유족 5명으로 구성.
- '약속을 어긴 김대중정권 회개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원회' 문정현신부님 등 민주당사로 한광옥 대표를 만나 단별호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촉구.
- 종로 인사동에서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미국의 아프간 폭격을 규탄하며 전쟁반대 집회를 열다.
- 10** 1999년 10차 평양 범민족대회를 다녀와 2년 6월 선고를 받고 전주교도소에 복역중인 부산연합 이성우공동대표 면회하다. 또한 재소자 건강관리 등 처우문제로 교도소장과 보안과장 면담(권오현).
- 통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명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반전평화시국선언대회'를 마치고 미국의 보복전쟁 반대와 정부의 전쟁지원반대 구호를 외치며 종로까지 거리행진.
- 서울 구치소에 계신 김규철 선생님을 이정태, 이창희 회원이 면회함.
- 1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오종렬, 남상현, 허영준, 권오현등 대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만나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 의견 나눔.
- 양심수후원회 13차년도 6차운영위원회 서울대 민가협 장터에서 열고 양심수후원회 2001 회원 역사기행 등 후원회 활동·사업 등 논의하고 어머님들 위로격려.
- 민가협 397회 목요집회. 서울대 장터에서 열림. 서울대 법대 민주법연 주관으로 도서관앞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주제로 강위원 5기 한총련
의장과 김승교 변호사 발언, 김건수씨 부인 홍은
주씨 사례발표 등

- ❶ 서울지법 형사14 단독 신광렬판사는 이른바 ‘만 경대 방명록’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 속·기소되었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게 증거인멸 우려없다며 보석신청을 하자- 이날 오후 출감.

12 ❷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입원치료중이신 정순덕 선생님 문병했습니다. 선생님께선 그 어느 때 보다도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간병 아주머니께서 참으로 애써주시고 계셨습니다. 정선생님께서 건강이 회복되시고 북녘으로 가시길 열심히 빌었습니다. 이강일 원장님 찾아뵙고 감사인사 드렸습니다. 이정태 운영위원과 권오현 다녀왔습니다.

- ❸ 꽝인석 회원(편집위원)님께서 할머님(한현순님)상을 당하셨습니다. 나이 많으시어 오랫동안 투 병하시다가 93세를 일기로 운명하셨습니다. 권오현, 이정태, 고광희, 송창학, 양계숙, 이득행, 변의숙, 이창희 회원등이 부천 새천년 장례식장으로 문상. 14일 전남 나주군 남평면 선산에 모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❹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 규)는 1991년 창원대 민주화운동 동아리 참교육 연구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실종된 이 학교 교육학과 2년 탁은주씨 사망사실을 유전자 감식으로 밝혀냈다고 밝히고 탁은주씨의 죽음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자살·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함.

13 ❺ ‘의문사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항린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진상규명위 인적쇄신문제 등 논의.

- ❻ 양심수후원회 2001회원역사기행 답사를 1박2일로 경기남부지역에서 진행함, 이창희, 노혁, 이정태, 고광희회원 함께 하다.

- 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 대책위’ 주최로 ‘미국MD구축반대 국제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MD구축보복전쟁반대, 평화실현

촉구하다.

❽ 한강시민공원에서 ‘매향리국제문화제준비위원회’ 주최로 ‘매향리 평화와 전쟁반대를 위한 국제문화제’ 열다.

❾ ‘매향리 문화제’에 참가하려던 서강대 박강노, 이지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과 2000년 문과대학생회장 김보연학생을 마포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이 한총련 불탈퇴 혐의로 강제연행 - 서강대 학생들 200여명 마포서 앞에서 항의농성과 집회를 열고 석방촉구 - 김보연학생 어머님과 학생 대표 2명, 권오현 양심수회장과 연행학생들 면회하고 마포서에 즉각석방 촉구.

14 ❾ 대법원1부(주심 배지원대법관)는 민가협 등 14개 시민·사회 인권단체가 1996년 8월 명동성당 주변에서 양심수석방 등 캠페인과 집회를 열었으나 경찰이 ‘집회방법이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회를 가로막은 행위와 관련 국가와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의 무조건저지는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❿ 정순덕 선생님께 김현애, 홍은경 회원이 문병을 함.

15 ❻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민중연대, 정신 대문제 대책위, 자통협, 한총련 등 100개 사회단체는 ‘고이즈미’ 일총리 입국을 반대하는 집회를 동작동 국립묘지, 서대문 독립공원, 종묘공원 등에서 열고 역사왜곡, 신사참배, 군국주의 부활 등을 규탄하고 입장기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임 - 특히 한총련 학생들은 독립문 부근 고가도로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다.

16 ❽ 의문사진상규명 비상대책위 오종렬, 홍근수, 허영춘, 남상현, 권오현 등은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면담. 인적쇄신 등 의견개진

❾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83개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는 명동성당

-
-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병호위원장 석방공동 대책위’를 발족시키고 단병호위원장 즉각석방촉구.
- ❶ 소식지 편집모임이 서울극장 근처에서 이승미, 김호, 정은주, 유영순, 박정범, 이창희, 고광희, 이정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림.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나눔.
 - ❷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주최로 ‘미국의 보복전쟁 즉각중단과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를 위한 반미연대집회’를 열고 미국의 전쟁중단할 것을 촉구.
- 17 ❸ 동국대 ‘상록원’에서 ‘강정구교수석방대책위’, ‘강정구교우석방 향린교회대책위’, ‘강정구교수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 동국대 투쟁본부’ 공동주최와 통일연대 후원으로 강정구교수석방환영식 열림.
- ❹ 서울지법 민사33 단독 심준보판사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박정훈씨 등 4명과 변호사 2명이 ‘변호사 접견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기는 구속자들에게 500만원씩 변호사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
 - ❺ 이정태, 곽인석, 이창희 회원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신 김규철, 임동규선생님을 면회함.
- 18 ❻ 민가협 398회 목요집회가 열림.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 임기란 상임의장 여는 말,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부회장 농민시위사례 발표, 김낙준씨 구속과 관련 최인찬씨 사례 발표, 96년 민가협 집회·시위와 관련 경찰의 위법성 대법판례 등 남규선 총무 발표
- 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범민련, 전국연합,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가협, 유가협, 한청협, 한총련 등 회원이 모인 가운데 범민련간부석방촉구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열다.
 - ❽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현부장판사) 심리로 김규철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고, 김규철부장 등 6명의 모두 진술과 검찰의 직접심문이 있었음. 범민련 간부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받는 사실 자체를 거부(문재룡)하거나 공소사실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이날 문재룡 서울연합 부의장은 폐암으로 밝혀진 중환자로 구속집행정지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음.
- 19 ❾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29차 회의를 열고 1976년 명동 YMCA회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선출반대시위와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이해동목사 등 191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 ❿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1973년 중앙정보부가 이른바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 조사했던 서울대 최종길교수가 혹심한 고문을 당했으며 당시 현장검증이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힘.
 - ❻ 후원회소식(120호) 발송작업. 이창희, 고광희, 김민정, 김숙희, 모지희 회원 등과 함께 함.
- 20 ❾ 후원회소식 120호 발송, 국내 1055통, 국제 15통 보냄.
- ❿ 서울지검 공안2부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집회와 파업주도 혐의로 기소 - 그러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등 83개 시민·종교·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단병호위원장 석방대책위원회’는 단병호위원장의 구속·기소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석방촉구.
 - ❽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인사 1034명이 서명한 ‘김대중대통령의 경찰개혁 공약이행 1000인 선언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경찰제, 수사권독립등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 촉구.
 - ❾ 종로2가 YMCA 앞에서 서민노회대책위, 단국대 활동가조직사건대책위, 민혁당대책위, 김건수대책위, 김대원석방대책위, 황선대책위, 통일연대대책위, 한총련특위, 한청대책위등 구속양심수

석방대책위와 (후에 자주민보대책위 새로 가입) 범민련후원회, 양심수후원회등 후원단체등 공동 주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후원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이행과 국가보안법폐지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토요캠페인' (이후 국보법철폐, 양심수 석방토요캠페인)을 벌임. 참가인원 40여명이 함께한 이 캠페인에서는 양심수석방 서명운동과 선전물 나누어주기, 캠페인연설, 문화공연 등을 함께 하며 국보법폐지와 양심수석방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동참을 호소. 첫날이었던 이 날은 양심수후원회 책임아래 진행 - 토요일마다 참가단체 돌아가며 주도하기로 했음. 변의숙, 이승미, 이창희, 고향희, 신현부, 김민정, 김도균, 권오현 등이 함께 했음.

서울역 광장에서는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참가자 2000여명이 모여 미국의 잔혹한 아프칸 폭격 등 보복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집회를 열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 명동에서 정리집회를 열고 전쟁반대와 정부의 전쟁지원 즉각중단을 촉구.

21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이윤성씨 등 5건의 군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81년 11월부터 3년동안 운동권학생 1100여명이 당시 보안사 치안본부, 검찰, 안기부, 문교부, 대학당국이 동원돼 학생들 동향 파악 - 연행 - 등급분류 - 강제입영 - 특별정훈교육 등 이른바 '녹화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역 8일을 앞두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윤성씨도 강제징집을 당하여 '월북기도, 보안사조사, 자살' 이란 당시 군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월북기 도사실이 덧씌워졌다고 밝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또한 1973년 이른바 '유럽 거점 간첩단사건'에 연루 중앙정보부에서 조사 받다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서울대 최종길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동베를린행을 종용하는 등 간첩몰이로 고문하다 희생된 의혹이 높다고 밝힘.

22 역사문제연구소, 범민련, 전국연합, 자통협 등 62

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간인학살 특별 법제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는 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국군과 미군 등에 의한 민간인학살은 73건, 2만3천6백여명(국군 19건 2만2천, 미군 54건 1600여명)으로, 국방부의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

- 23**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오랜 옥고를 치르고 출소한 김영수선생님이 직장암, 간암 등 질환으로 오랜 투병을 해오시다 새벽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은 25일 대한병원 장례예식장에서 발인하여 전북 부안 선영에 모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오랜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이상필선생님께서 노환의 오랜 투병을 해오시다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후원사업에 큰 도움을 주시기도 했기에 감사패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25일 중앙병원 장례예식장에서 발인식을 갖고 화장하여 용미리 시립공원묘지에 납골안치 되셨습니다. 삼가명복을 빕니다.
- 동국대 교수식당 '장록원'에서 2001민족통일대축전 참가단 2차모임이 통일연대 주관으로 있었음. 어떠한 걸림돌에도 민간통일운동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과 축전참가단 구속자석방운동을 힘차게 벌일 것을 다짐.
- 국정원 수사관 새벽 자주민보 이창기발행인과 박준영, 백운종기자 등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자택에서 강제연행하고 자주민보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 등 압수해가다.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공동대표 남상현, 단병호, 박정기, 오종렬, 권오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의 군의문사 조사과정에서 '녹화사업'의 실체와 범행이 드러난 것과 관련 '녹화사업'의 진상규명을 촉구.

-
- ▣ 민변, 참여연대 등 93개 시민·사회단체는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설회의’를 발족시켜 사전집회금지조항(5조) 삭제와 중복집회금지(8조), 일몰후집회금지(10조), 외국대사관 및 국회 등의 100미터 반경내 집회금지(11조) 조항 등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힘.
 - 24 ■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에서 주관하는 ‘인권학교’의 연속강의 중 ‘국민의 정부에서의 인권운동’ 주제 양심수후원회 권오현대 표 인권법당에서 강의.
 -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판사는 대한항공노조의 파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양경규연맹위원장을 공소사실을 두고 쌍방이 다투고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보석신청을 허가.
 - 사월혁명회 도광호 선생님과 이창희 회원이 김규철 선생님 면회를 다녀옴.
 - 25 ■ 민가협 399회 목요집회가 열림. 여는 말 임기란 상임의장, 자주민보 발행인 이창기씨 등 구속과 관련 부인 김일심씨 사례 발표, 서민노회·문종찬씨 서민노회 석방촉구 사례 등
 - 안희숙선생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02883-5507인 전화번호는 그대로이고, 주소는 서울 관악구 봉천3동 1-469입니다. 갈현동 후원회원들이 선생님의 이사를 도왔습니다.
 -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회의실에서 인문·사회과학 출판사와 인권·사회단체 대표등이 모여 ‘자주민보 단압저지, 구속언론인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준비와 1차간담회’를 갖고 이창기 자주민보발행인 등 구속자 석방대책 논의.
 - 낙원동 ‘전통문화센터’(우림빌딩 303호실)에서 범남본, 전국연합, 자동협, 민가협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사월혁명회 민족학교 개강식을 갖고 사월혁명회 상임대표이면서 민족학교 교장인 황건첫 강의 4월혁명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정병호연구소장의 사월혁명의 정치·경제적 의미 등 강의가 있었음.
 - 26 ■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공동대표 곽태영외)
- 는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박정희기념관 저지결의대회’를 열고 박정희가 쓴 탑골공원 정문 ‘삼일문’ 현판을 철거하려다 경찰제지로 무산.
 - 10·26재평가와 김재규장군 명예회복추진위원회(통일연대 김승훈 등)는 10·26사건 22돌을 맞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 신청서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에 접수시킴.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황장근부장판사)는 거창양민학살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유족들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하면서도 ‘국가는 거창사건 희생자 가운데 살아남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유족 1명당 20만원씩 위자료 지급할 것을 다짐.
 - 종로 YMCA앞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12개 단체가 함께 하는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토요캠페인’을 벌임. 이날은 ‘한청’ 책임으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1시간동안 진행되었는데 마침 귀국중인 ‘빠리의 택시운전수’ 저자 홍세화씨도 이 거리를 지나다 캠페인에 합류했었음. 곽인석, 이승미, 변의숙, 고광희, 양계숙, 이창희, 권오현이 함께 했음.
 - 27 ■ 정순덕 선생님께서 김현애, 황은경, 곽인석 회원 등이 문병을 함.
 - 불교인권위원회 안국동인권법당에서 ‘인권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열고 양심수석방운동 등 인권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
 - 28 ■ 양심수후원회 10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모두 31명이 함께 하여 가파른 바위산길 만만치 않은 산행이었지만 아직도 화려한 단풍과 늦가을 맑고 높은 하늘의 가을 날씨 만끽하며 쌍룡사능선 ‘만경대’ 청룡사터를 거쳐 하산했음. 험한 바위봉에서 특히 민가협 어머님들이 준비해온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만경대에서 만장봉, 자운봉, 포대능선의 위용과 단풍을 감상하며 소개시간과 시사모임 시간도 가졌음. 내려오는 길 청룡사터에

서 이정태회원이 지도하는 봄풀기 체조를 하고 도봉산입구에서 푸짐한 뒤풀이로 산행일정 마침 - 신현의, 이종린, 송세영, 류종인, 장재영, 구준서, 장덕선, 소기수, 안신옥, 고광희, 서순정, 조순덕, 이영, 유기진, 김교영, 이정임, 이정태, 한수정, 양계숙, 이득행, 김숙희, 고혜경, 김수룡, 김재선, 이복수, 여성원, 이창희, 변의숙, 권주환, 변수현, 권오현 등이 함께 함.

29 기독교연합회관 902호실에서 민가협등 인권·사회단체들 '자주민보 탄압저지 및 구속언론인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결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경과보고(권오현) 기자회견문(홍근수) 국정원에 보내는 질문(임기란)등 자주민보 발행 인등 부당구속을 규탄하고 즉각석방촉구 - 마친 다음 국정원 앞에 가서 규탄집회 열었음.

서울지법 형사14 단독 신팽렬판사 심리로, 2001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지금은 보석중)기소되었던 동국대 강정구교수의 첫 공판이 열렸음. 강정구교수는 국가보안법의 반통일, 반인권성을 규탄하고 만경대 방문록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죄를 덮어씌우려는 공소내용 부인, 규탄하였음.

인천 부평구 산곡성당 옆 '샤미나드 피정센터'에서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소속 신부와 신도 등 300여명은 김대중정권 회개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국미사'를 열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촉구.

30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주최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의 개정촉구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다. 집회는 유가협 박정기회장의 인사말, 이은경사무처장의 경과보고. 이수호(전교조위원장), 권오현(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허영구(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씨의 정치연설과 남상현 추모단체 연대회의 대표의 맷는말로 이어졌음.

양심수후원회 기획모임이 '만남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다가온 2001회원역사기행과 관련 참가

인원과 준비사항 점검, 기행일정에 따른 역할분담 등 협의. 이득행, 노혁, 양계숙, 변의숙, 송창학, 이정태, 이승미, 이창희 등이 함께 함.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등 30여명이 미국의 보복전쟁반대와 정부의 전쟁지원중단을 촉구.

31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통일뉴스 창간1주년 기념식 열림. 기념에는 범민련, 전국연합, 민화협 등 통일운동단체와 권오현, 송창학, 주경임 후원회원 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이계환대표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통일뉴스를 발전시키겠다는 요지의 기념사와 기념강연(김남식선생), 기념공연이 있었고 문정현, 오종렬, 김원웅, 손장래, 김종수, 노중선선생의 축사와 격려의 말이 있었으며 식당에 내려와 후원의 밤 행사로 이어졌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1975년 동아일보 재직중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저항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제작거부를 하다 해직된 최학래(한겨례신문 대표이사)씨 등 언론인과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사찰카드'를 빼내 폭로했던 윤석양씨 등 205명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국회 본회의장에서 7천여명이 해직되어 323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원 이승환, 임경상, 윤성진씨 등 3명이 '한국통신 계약 문제 해결하라' 등 유인물을 뿌리고 현수막을 내걸다 출동한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나와 경찰에 넘겨짐.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신 김규철선생님께 모자회와 딸 다인, 이창희 등이 면회를 다녀옴.

양심수에게 '밀' 지 4권 발송

양심수에게 영치금 115통 발송

출소장기수선생님들과 양심수가족들에게 지원금을 보냄